21



3 - AUG - 9
Copy ______ 1960

청년생활

1957.6



젊은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휴식 — (대동강에서)

청년생활 1957. 6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차 례



로동 계급의 사상이란 무엇인가

신 태 호

로동 계급의 사상이란 사회주의적 사상 즉 맑스—레닌주의적 사상을 말한다. 조선 로동당은 이 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로동당은 이 사상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과 행복을 위한 혁명 투쟁을 지도하고 있으며 로동 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을 이 사상으로 교양하고 있다. 그러면 맑스—레닌주의 사상은 어찌하여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되며 그것은 어떻게 하여 발생하였는가?

사람들의 사상은 그들의 생활 처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부르죠아지는 부르죠아적 사상을 가지게 되며 로동 계급은 자기의 사상인 프로레타리아적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지게 된다. 로동 계급과 자본가 계급간의 생활 처지가 서로 다르고 그들의 리해 관계가 서로 적대되는만큼 그들의 사상도 서로 적대되며 투쟁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은 자금, 공장, 광산, 철도 등 모든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며 로동자는 아무런 생산 수단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가들에게 착취와 압박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가들에게는 모든 권력과 부유한 생활이 있고 로동자들에게는 다만 빈궁과 고통이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들에게는 천국이다. 자본가들—부자들은 자본주의 제도를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그것을 영구히 유지하려고 열망한다. 여기로부터 다음과 같은 그들의 사상이 흘러 나온다.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남이야 어떻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는 내 마음대로 너는 네 마음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 먹는 것도 제마음대로—라는 사상 즉 개인주의, 자유주의 및 배타적인 민족주의—이러한 것이 부르죠아적 사상의 근본이다.

자본주의 제도는 로동자 대중에게는 지옥이다. 따라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생활로 부터 벗어 나려고 한다. 여기로부터 다음과 같은 로동 계급의 사상이 흘러 나오게 된다. 절대 다수 근로자들의 빈궁과 고통은 자본가, 지주들이 공장과 토지 등 생산 수단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수단을 빼앗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로동 계급의 사상—사회주의적 사상의 기본 골짜이다.

물론 이러한 사상이 일조 일석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점점 드러나고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투쟁이 일어남에 따라 사회주의적 사상은 오래'동안에 걸쳐 싹트고 있었다. 그리하여 약 110년 전에 로동 계급의 위대한 수령이며 전 세계 인류의 스

승인 맑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사회주의적 사상은 완전한 리론 체계를 가진 과학적 사상으로서 창시되였으며 완성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로동 계급의 립장에 서서 영국, 불란서, 독일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로동 계급의 투쟁을 관찰하고 한편 그 이전의 모든 선진 사상 리론들과 력사 및 자연 과학의 성과들을 심오하게 연구한 결과에 1840년대에는 완성된 사회주의적 사상에 도달하였다. 맑스주의 사상은 로동 계급을 비롯한 피압박 대중의 계급적 처지와 그들의 근본적인 생활상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의 해방 투쟁에 복무할 것, 그 투쟁을 지도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 사상은 로동 계급을 비롯한 전체 피압박 대중의 리해 관계와 그들의 투쟁의 목적과 과업, 이 목적과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을 가르쳐 준다. 즉 맑스주의는 로동 계급이 전체 피압박 대중들을 동맹자로 삼고 그들을 지도하면서 계급 투쟁을 전개하며 자본가, 지주의 세력과 착취 제도, 사유 재산 제도를 꺼꾸러뜨리고 착취와 억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데 대한 혁명적 사상이며 리론이다. 그런데 낡은 사회를 혁명으로써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은 단지 로동 계급의 '욕망 즉 주관적 의도만으로써는 결코 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연과 사회의 객관적 법칙들 특히 경제 발전의 법칙에 튼튼히 의거해야 한다. 때문에 맑스주의 리론은 자연과 사회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는데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한다. 맑스—레닌주의 철학의 한부분인 변증법적 유물론은 자연과 사회 즉 우주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관한 가장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지식을 준다. 즉 우주는 물질로써 구성되여 있으며 사람의 의식이 아니라 물질이 선차적이라고 본다. 모든 사물과 현상들은 호상 련관되여 있으며 부단히 운동 변화 발전한다. 변화 발전의 근본 원인은 사물과 현상 내부에 존재하는 모순에 있다고 본다. 이 변증법적 유물론의 법칙들은 인간 사회에서도 적용된다. 사회에서는 물질 생활 즉 경제 생활이 기본이고 그것이 모든 리론 생활을 지배한다. 따라서 경제 생활의 변화 발전에 따라 사회의 모든 것이 변화 발전한다. 사회의 변화 발전의 근본 원인은《생산력》과《생산 관계》간의 모순이다. 노예 사회 이후의 계급 사회에서는《생산력》을 담당하는 것은 피착취 계급들이며《생산 관계》를 대표하는 것은 착취 계급이다. 그래서 계급 사회에서《생산력》과《생산 관계》간의 모순은 곧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 간의 모순으로 나타나며 착취 계급을 반대하는 피착취 계급들의 투쟁으로 나타난다. 이리하여 노예 사회 이후 인간의 력사는 계급 투쟁의 력사이며 계급 투쟁은 낡은 사회를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가져오는 추동력으로 된다.

따라서 어느 사회를 물론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인 생산을 담당하고 계급 투쟁으로써 력사를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 대중이다. 인민 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다.

이러한 것이 맑스—레닌주의 철학

이 가르쳐 주는 로동 계급의《세계관》이다.

로동 계급은 자본주의 사회를 전복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자면 반드시 이상과 같은《세계관》즉 자연과 사회의 본질과 발전 법칙에 대한 지식에 의거해야 하며 특히 또 자본주의 사회 및 사회주의 사회의 경제 발전 법칙들에 의거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 발전 법칙은 맑스주의 경제학이 가르쳐 준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착취가 점점 더 심해지고 로동자들과 모든 근로자들의 빈궁도 점점 더 심해진다. 또 생산은 국가적 계획과 통제가 없이 무정부 상태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가끔 무서운 공황이 일어나서는 생산을 파괴하며 자본주의를 약화시킨다.

이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적으로 보아 멸망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제국주의 시기, 즉 독점 자본주의 시기에는 국내에서나 식민지에 대해서나 자본의 착취가 극도에 달하고 따라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도에 달하여 각국에서 혁명이 폭발하게 된다. 즉 제국주의 시기는《죽어가는 자본주의》시기이며 사회주의 혁명의 시기이다.

그러면 자본주의를 실지에 어떻게 전복하고 착취 없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사회를 건설할 것인가? 이에 대한 사상의 리론이 과학적 사회주의(공산주의)이다. 과학적 사회주의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자본주의 사회는 그 경제적 모순 때문에 불가피적으로 멸망할 운명을 가지고 있지만 부르죠아지의 국가와 자본주의 제도를 전복함이 없이는 자본주의는 결코 저절로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부르죠아지의 국가와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장 선진적인 계급인 로동 계급 뿐이다. 로동 계급은 가장 선진적인, 대 규모적인 생산에 집중되여 있기 때문에 각성되고 조직되기 쉬우며 철저한 무산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혁명적이다. 또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과학으로 지도되는 당의 령도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로동 계급은 혁명 투쟁으로써 자체를 해방하는 동시에 모든 피압박 인민들과 전체 인류를 해방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는다.

로동 계급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르죠아지의 주권, 그들이 국가를 혁명으로써(그들이 폭력으로써 대항한다면 반드시 폭력으로써)전복 청산하고 자기 손에 주권을 쟁취하여 로동 계급의 독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 전체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로동 계급의 독재는 한편 전복된 자본가, 지주들의 반항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여야 하는 동시에 착취자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생산 수단을 국가의 소유, 즉 전 인민의 소유로 만들어야 하며 그 토대우에서 사회주의적 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는 데는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농업의 집단화—기계화가 필요하며 이로써 사회주의 물질—생산적 토대를 축성하여야 한다. 또한 자본주의의 잔재 요소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소상품 생산자들—농민, 수공업자들은 반드시 협동화를 거쳐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조하여야 한다. 로동 계급의 독재는 이렇게 함으로써만 착취와 빈궁을 청산하고 인민에게 부단히 향상되는 물질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로동 계급은 혁명과 독재로써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당의 령도와 로농 동맹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단결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로동 계급은 인구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단독으로써는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승리할 수 없다.

로동 계급은 반드시 리해 관계가 기본적으로 공통한 농민과 공고한 동맹을 맺어야 하며 이를 핵심으로 하여 더욱 광범한 근로 대중과도 동맹하여야 하며 그들을 지도하여야 한다. 또 그들과의 단결도 강화하여야 한다. 그 단결은 한 나라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만국의 로동자들, 근로자들이 서로 단결하여야 한다.

로동 계급은 과도기를 거쳐 사회주의로 부터 공산주의에로 점차적으로 이행한다.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능력에 따라 로동하고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 사회주의적 원칙으로부터《능력에 따라 로동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공산주의적 원칙으로 바꾸어질 것이며 사람들의 의식에는 낡은 사회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고 로동은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생활상 첫째가는 요구로써 유쾌한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며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간의 차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거의 없어질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고도의 지식과 기술과 예술을 소유하고 즐길수 있는 문화적인 사람들로 될 것이다. 즉《자유의 왕국》이 실현될 것이다. 대체로 이러한 것이 과학적 공산주의 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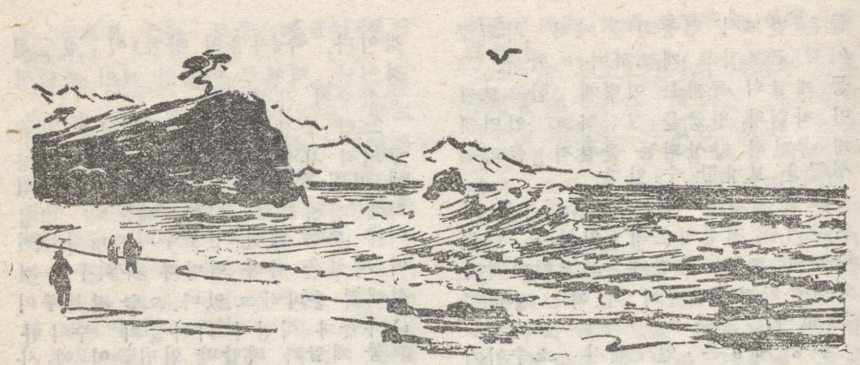
쏘련 공산당과 쏘련 인민은 사회주의적 사상,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따라 오늘 공산주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제2차 대전 이후 모든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이 이 사상을 따라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승리하고 있다. 오늘 자본주의 나라들과 식민지 나라들의 수억만 로동 계급과 피압박 인민들이 이 사상을 따라 투쟁에로 나아가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사회주의적 사상,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진리성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해방후 우리 인민은 로동당의 지도하에 이 사상의 가르침을 따라 투쟁함으로써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승리하였으며 또 승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상을 깊이 파악하면 할수록 혁명 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기 사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업에서 창발성과 적극성을 더욱 더 발휘할 수 있으며 더욱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모든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 사상과 습성의 잔재—개인 리기주의적, 개인 영웅주의적, 자유주의적, 출세주의적, 관료주의적 경향들, 로동을 천시하며 농촌과 수산 부문 사업들을 싫어하는 경향들은 모두 다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방해로 된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새 조국을 건설하는 인민들, 특히 조국의 장래를 담당하는 청년들은 낡은 사상과 습성의 잔재를 하루 속히 청산하고 선진적 로동 계급의 사상—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되여야 할 것이다.



바다'가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

김 현

황혼 무렵의 바다는 유달리 소란했다.

우리는 지금 부두를 천천히 거닐고 있다. 바다는 쉼없이 움직인다. 아니, 바다는 영원히 움직일 것이다.

먼 수평선, 그 우에 점점이 떠 가는 구름들, 그 아래 용감한 우리의 어선들, 수면을 스치며 날으는 흰 갈매기들, 묵묵히 기슭 가까이 밀려왔다가는 다시 밀려서 나가는 크고 작은 물이랑의 변화들, 이 모든 격동적인 산 화폭우에 지금 골고루 붉은 노을이 내려 앉고 있다.

《그래 그 동무는 올해 몇살입니까?》

《서 수길 동무 말이죠? 스물 두살입니다. 애티가 엿보이는 체소한 동무지요.

초중을 마친 것이 몇해전이라고는 하지만… 학생 기분이라 할까요, 퍽 당돌하고 순진도 하고… 어려운 일이라면 앞장을 서려는 그런 동무입니다.》

먼 바다를 응시하는 민청 위원장 리 순천 동무의 얼굴에는 자기의 생활과 생활 속의 친우들을 생각하는 한없는 애정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지금 저예망선 16호를 타고 있습니다. 16호 선장은 리 동만이란 분인데 이 분은 20여 년이란 긴 배'생활을 심장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가 걸어 온 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민청원들의 심장을 항시 흥분케 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는 그에게 국기 훈장 제 2급을 주었습니다. 이 선장이 어느때엔가 수길 동무에게 이런 말을 한적이 있었지요.

〈수길이, 이 훈장을 보오, 이 훈장에는 수길이의 위훈도 있소〉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바이, 제가 저우한 일이란 저 바다에 섞인 콩알만한 물'방울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저예망선 16호이니, 그래 일이 잘 아니 될리 없지 않습니까? 기자 동무! 올해에 들어 서서 1.4분기 기간, 그러니까 3월말 까지의 기간에 저예망선 16호는 자기 계획을 200%이상 실행했습니다. 요사이 수길이는 자기 계획을 212.5% 실행한 것으로 됩니다. 아마, 기자 동무는 이런 장황한 수'자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흔히 이런 수'자는 지루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자야말로 우리의 가장 고귀한 로력이 낳은 생활의 노래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수길이는 자기의 수첩에 달마다 분기마다 자기의 계획 실행 수'자를 적고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때로는 물'결이 출렁이는 잔교에 서서 그 수첩을 펼쳐도 볼것이며 또 때로는 데끼에서 수첩을 들쳐도 볼 것입니다,

그가 수'자만을 보고 있으리라고는 나는 믿지 않습니다. 조국이 준 일, 생활이 맡겨준 일, 자신의 전도가 바라고 있는 일, 이 지극히 숭고한 일에 대하여, 이 일을 수행하는 길에서의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며, 만족스럽든 일을 유쾌히 회고도 하며 …어떻습니까? 기자 동무도 그가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유달리 뜨겁습니다. 어머니의 그에 대한 사랑 또한 지극합니다. 그럴수밖에 없는게 그는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였습니다. 지난날 (그가 우리 사업소에 들어오기 전까지 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해변'가와 시장을 매일 같이 황황히 오고 가고 하면서 생선 장사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평범하게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중을 마친 뒤에도 그는 어머니한테 의지해 살았습니다. 한사코 그의 어머니는 그의 젊은 꿈을, 그의 바다에로의 진출을 가로 막았습니다.

이 사이의 그의 고민이란 어린 그에게 있어서는 큰 것이였습니다.

〈아니 넌 그래 끝까지 이 어미의 가슴을 태울 작정이냐?〉

〈어머니, 옛날과 오늘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앞으론 큰 기계'배루…〉

〈듣기 싫다〉

후에 안 일이지만 모자간엔 이런말도 서로 주고 받고 한 모양입니다.

어느날 그가 우리 사업소 민청 위원회를 찾아 오질 않았겠습니까! 그는 저를 찾기까지 무척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동무, 전 민청원입니다. 초중을 마친 뒤 곱빡 한해채 놀고 있습니다. 전 수산 부문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는 한참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더니 저더러 자기의 어머니를 꼭 한번 만나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동무는 어째서 배를 탈려고 합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위원장 동무, 저의 어머니는 지금 생선 장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큰 장산 아니지만…그렇지만 위원장 동무! 전 그게 싫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날 보고 손질하며 비웃는것만 같습니다. 〃다 자란 장부가 장사하는 어머니의 고기 광주리를 타고 논다〃고 하면서 말이애요〉

이때 나는 그의 이야기를 막으면서

〈동무는 그래서 배를 타겠다는 겨요?〉하고 또 물었습니다.

〈리유는 또 있습니다. …장사하

는 어머니는, 내가 바다에서 사회주의 건설자로만 되면 으레 수산 협동조합을 찾으리라는 이런 생각 이외에, 리유는 또 있습니다〉

그는 총명한 두 눈을 굴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바다엔 청년들이 적습니다. 지금 바다에는 로련한 분들이 많습니다. 전 젊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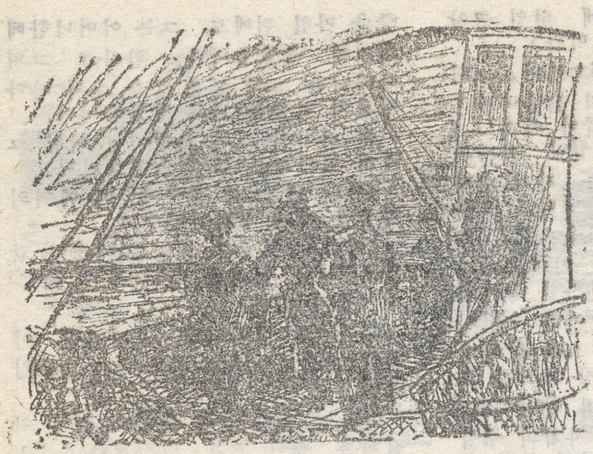
서 수길 동무는 토론식으로 말했습니다.

리지적인 두 눈'길은 나를 육박하는 것만 같습니다. 나는 그의 날카로운 눈'결을 피하면서

〈그렇지만 배를 탄다는 것은 힘든 일이오, 때로는 결심과 실재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동무는…〉

〈압니다.〉 그는 나의 말을 가로채며 대꾸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힘든 일이 쉬운 일로 되게 해 보자는게 저의 또 하나의 리유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서 수길 동무와 더는 긴 말을 나눌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동무의 어머니를 꼭 찾아 뵙겠습니다… 동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그는 이미 자기의 전도에 대하여 확고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의 소원대로 그와 함께 그의 집을 방문했고 또 그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의외에도 퍽 리해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자기 아들만은 바다로 내 보낼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그의 주장이였습니다. 두번째 찾았을 때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평생을 우린 바다'가에서 살아 왔다우. 그옛날 몹쓸 세상에서부터… 지금 세상에야 별일이 있겠수. 그러구 이런 세상을 만났으니 젊은 것들이 그런데서 일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우리 집안엔 저애 하나뿐이여서…〉

그러나 기자 동무! 낡은 것은 비록 적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라 해도 새것으로 바뀌어지는 법입니다. 이 어머니와 저와의 사이엔 며칠후인 어느날 저녁 수길의 그 절실한 뜻을 받아 주자는 약속이 교환되였습니다.

이 이야긴 더 길게 아니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있든 그 며칠 사이, 다시 말하자면 수길이와 그의 어머니와 접촉하던 그 시기에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시대 청년들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좌우간 새로운 인간의 마음 속을 꿰뚫어 본것 같기도 하고 또 민청 사업―그렇습니다. 청년들 속에서의 산 사업이란 어떤겐가 하는 것을 맛본것 같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실 나는 그때 한 청년의 지향을 도와 준데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을 지녔든 것입니다.

그후 그는 우리 사업소에 오게 되

였고 자랑스러운 젊은 어로공으로 자라게 되였습니다.

지난해 동기 작업에서도 그는 지배인 상을 받았고 올해 1. 4분기 총화때도 그는 지배인 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의 저예망선에서의 용감한 투쟁의 결과입니다. 동기 작업이란 이루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듭니다. 온 몸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년초 한 분기 동안의 어로 작업때에도 손 끝이 얼어들 지경입니다. 어로 작업―이도 역시 복잡한 과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 사이 사이에 어찌 난관과 불안과 고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기자 동무, 나는 그 많은 사연을 다 말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오직 서 수길 동무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무엇을 위하여 그렇듯 배'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자기 어머니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가를 말하려 합니다.》

어느새 망양정 머리우에 조각달이 솟았다. 별들도 총총하다. 어둠이 서서히 나리면서 더욱 파도 소리는 높다. 푸른 신호등이 멀리 가물거린다. 그것은 흡사 이곳 바다'가 용사들의 찬란한 미래에로의 전진에 대한 신호인듯 나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 회의가 있은 뒤인 오늘날에 와서는 더욱 우리 사업소 모든 민청원들의 심장이 말 그대로 대양 우에서 불타고들 있습니다. 그들이 파도와 조류의 완강한 수압을 헤치며 나갈 때 그러구 또 큰 풍파와 싸울 때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십니까?…어군 탐색때나 기동 작업때에 그들은 정말 자신을 잊고 일에 열중합니다. 그러나 그 열중이 우연한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국과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이 그들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으니까요.

하루는 그가 기관부 수리 작업에서 돌아 오든 때였나 봅니다. 분명히 활복장 근처였다고 생각됩니다. 어둑컴컴한 곳에서 론쟁하는 말소리가 들려 오질 않겠습니까? 저는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조용히 발을 옮기였습니다.

〈챗! 어떻게 일하면서 배운담! 기수? 기사? 말은 좋다〉 〈아냐 배울 수 있어, 얼마던지! 초급당 위원장두 우리 회의에 와서 그러지 않았어! 그런 소린 이미 낡아 빠진 소리라구. 문제는 노력과 정열과 립장에 달렸지…선배들 한테서 배우지! 수전(水專)졸업생들의 책들도 빌려서 보구 근데 넌 기술 학습땅에서 왜 자꾸 뺑소니를 치니? 기수, 기사가 어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니?

〈말 말어…나에게 한해서는 그게 불가능 하단 말이야!〉

〈난 너의 그 생각이 싫다. 우리 함께 힘써서 기술을 배워야 한다. 그 옛날, 기술이 없어서 우리 부형들이 얼마나 저 바다에서 희생되였니. 그 때 《바다 주인》이 못되여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구박받구 천대받구 살았니? 너와 나는 저 바다'가에서 철부지 때부터 모래성을 쌓으며 물장란을 하며 자랐다. 이제 너와 나는 그때 아닌 오늘에 조국의 용사로서 투사로서 이 바다를 정복해야 한다〉 후자가 물론 수길 동무였습니다.

기자 동무! 나는 이 수길 동무에 대해서 이 이상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끝으로 첨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들의 민청 생활이란 하루'동안의 그 어느 사이의 토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생각, 우리 청년들의 일과 학습과 휴식이 모든 것이 아닐까요. 이 속에서 저도 배우며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양정을 멀리 가슴에 안으며 발'길을 돌렸다. 우리의 뒤에서는 끊임 없이 바다가 움직인다. 그것은 나에게 위대한 지향을 쟁취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바다'사람들의 가슴을 련상시킨다.

청 춘

—평양 건설자들에게—

박 승 수

10년이 흐르고
또 10년이 지나면
틀곪든 우리 청춘도
푸른 고개를 넘어서리.

즐거운 생활의 나날에
우리의 희망, 불타는 정열 어전하련만
어찌 이대로만 있으랴!
백발은 성기리라, 우리의 머리에도…

허나 우리 청춘은 영원하리,
우리 청춘은 찬연히 빛나리,
우리의 은혜로운 조국과 함께
우리가 건설한 평양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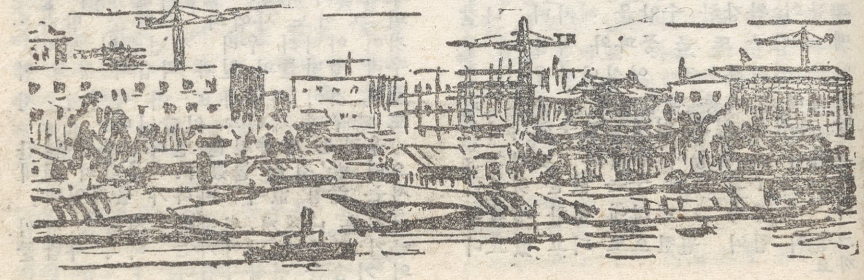
영웅의 도시, 평양을 목숨으로 지키고
청춘의 도시, 평양을 건설한 이야기
영웅적 인민의 투쟁과 함께
불멸의 전설로 전하여지리.

10년이 흐르고 또 20년이 흘러
여기 건설장이 록음에 덮인 먼 후'날
조국 수호와 평양 건설의 전설을
우리 젊은 세대에 전하여 주자

그때, 우리 백발이 됐어도
우리의 심장 젊음으로 고동치리니
긍지를 품고 말하리,
영예를 가지고 우리 말하리,

—전쟁의 포화, 건설의 언덕길에
청춘의 나날은 흘러 갔어도
영웅적 시대에 우리 살았고
페허 속에 이 평양을 건설했다—고

1957. 5. 20



남쪽 땅을 생각하면서



정 준 기

놈들은 구두'발로 문을 찼다
놈들은 아버지를 곤봉으로 후려쳤고
구원을 웨치는 아이들을
총으로 쏘았다…

장롱을 뒤져 갔다
시렵을 뒤엎었다.
이렇게 온 집안, 온 마을을 떨어 갔다.
들'개의 무리처럼 달려든 놈들은

연풍리만이드냐
한사람의 죽음만이드냐
재난의 고장은, 빼앗긴 목숨은
봄은 왔건만 풀'잎도
시들어 버린 남녘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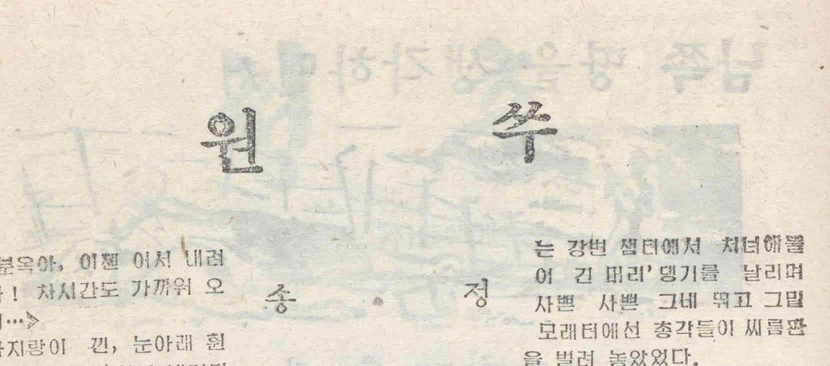
이 시각에도 어느 지붕 밑에선
한목음의 미음마저 없어
숨 거둔 어머니의 젖가슴에
아기는 철없이 매여달려 울리라
어느 거리의 한 모퉁이에선
총앞에 쓰러진 딸을 안고
어버이는 피눈물 짜리라

미제 날강도들은
화약내 풍기는 총구멍을 소제하며
휘파람을 불고 있다.
멸망의 길에 들어선 저들의 남은 숨을
잠시라도 어떻게 이어 볼려는듯…

미제 날강도들은
우리 겨레들의 굶주림 앞에서
저들의 불룩한 배를 만지며
무엇이 또 모자라서 이를 갈고 있다.
략탈이 없이는 불질이 없이는
저들의 살'길
이 세상 어데서나 찾을 길 없다는듯…

하늘이여!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처럼
끝없이 맑은 너,
너의 맑음, 너의 자유를 위하여
미제 침략자들의 칼부림
총부림 앞에서도
굴복을 모르는 남녘땅 형제들에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손'길을 전하라!

산이여! 들이여! 내'물이여!
어진 사람께 꽃과 웃음을 주는 너희들
너의 행복, 너의 락원을 위하여
파주의 아픔을,
남쪽땅 전역의 신음을
뚫고 넘어 항거하는 싸우는 형제들에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원을 전하라!



원 쑤

송 정

《분옥아, 이젠 어서 내려 가자! 차시간도 가까워 오는데…》

아지랑이 낀, 눈아래 휜칠한 들판을 휑하니 내려다 보고 있든 창섭이는 고개를 문뜩 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자 그의 곁에서 흐, 흐, 흑—흑—하고 구슬프게 흐느끼는 소리가 가볍게 들린다.

여름철의 흰 학생복 비슷한 광목 웃도리에 짧은 무명 바지를 받쳐 입은 창섭이는 스무살 가량이나 되여 보였다.

머리를 맥없이 돌려 얼굴을 두 무릎새에 묻고 어깨를 들먹거리고 있는 분옥이를 바라보는 그의 두 눈은 벌겋게 부어 올랐다. 그리고 창끝 같은 젊은 눈섭이며, 뾰족한 끝이 약간 들린 코며, 돌우라진 광대뼈며, 그의 날카로운 얼굴은 더욱 모가 나는것 같았다.

분옥이가 흐느끼는 소리는 차츰 높아져 소나무 성긴 적막하고 쓸쓸한 이 공동 묘지 산 기슭에 애처롭게 울리였다.

그들이 앉아 있는 뒤에는, 봉긋한 새 무덤이 있었다. 푸른 잔디로 갓 덮인 그 무덤은 해'볕에 번쩍거리였다. 그리고 분옥이가 떠다 무덤가에 빙 둘러 심어 놓은 빨간 산개나리꽃엔 노랑 나비들이 날아와 죽은 사람의 령혼을 애무하는듯 춤추고 있었다. 들판에서 훈풍이 불어오자 창섭이의 곱슬 머리는 뻣뻣이 일어서고 분옥이의 외가닥 머리꽁지는 그의 잔등에서 가볍게 흔들리였다

창섭이의 잔 이슬이 맺힌 눈앞엔 분옥이와 상철이가 첫 사랑의 연분을 맺든 작년 단오'날이 선히 떠올랐다. 초여름 드메'바람이 신선한 들꽃 냄새를 실어오는 강변 잼터에서 처녀애들이 긴 머리'댕기를 날리며 사뿐 사뿐 그네 뛰고 그밑 모래터에선 총각들이 씨름판을 벌려 놓았었다.

이날 총각들 패에선 웃동네의 《황소》인 상철이가 일등상을 타고 처녀들 패에선 아래'동네 분옥이가 일등상을 탔었다. 해저물녘, 그들이 헤여지기 전에 한 수다쟁이가 《얘들아, 상을 혼자 먹을레기냐? 오늘 상탄 둘은 배필이 되여 손색 없는데 저리 상을 놓고 잔치하는게 어떻냐? 핫, 핫, 핫…》

하여 모두들 웃기고 상철이와 분옥이를 얼굴 뜨겁게 만들었었다. 이것이 후일, 상철이와 분옥이가 서로 남 몰래 사랑하고 나중엔 부모들께 까지 알려저 정식 약혼을 하게 된 그 첫 걸음이였었다.

그런데, 아—상철이가 이렇게 빨리 주검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 ×

이래전 일이였다. 그날 지꽂은 봄'비는 온 천지를 뿌옇게 휩싸였다.

창섭이는 어제 뒤'산 솔밭에 올라가, 베껴다 놓은 송기가 래일 점심 끼니 때까지는 자랄 것 같애서 분옥이가 비를 무릅쓰고 산으로 오르겠다는 것을 만류하였다. 그리고 아침부터 랭랭한 아래'목에 누워 설사난 배를 쓰다듬으면서 몸을 뒤치락 거리고 있었다.

한낮이 되어 비'발은 좀 짐짓해졌다. 그러자 분옥이는 다랭이에 부엌칼을 넣고 또 산으로 오를 차부였다.

《분옥아, 넌 왜 말을 듣지 않니?》

벌떡 일어나면서 창섭이가 무뚝뚝하게

치는 소리였다. 《사내와도 달리 에식아이가 비에 흠뻑 젖으면 꼴 참 좋겠다?》

《내버려 둬요, 내 하는 일을!》 분옥이도 똥구란 눈을 할기죽 흘기며 지지않고 내쏘았다. 《남이 소나무 밭을 벌거숭이로 만들어 놓기 전에 조곰이라도 송기를 더 마련해 둬야지. 어떻걸려구 그래요, 오빠는?》

이렇게 오누이가 싱갱이질을 하기 시작하자 웃목에서 바늘을 코끝에 가져다 대고 실을 꿰고 있든 어머니가 딸애의 심정을 돌려 보고 목갈린 소리로 말을 하였다.

《분옥이, 네 말이 옳다. 남이 다 가차운 산에 것을 베낀 후엔, 먼 산에 오르내릴 일이 더 한심하니라. 그리구 분옥이 립장에선 상철이네 사정도 좀 돌봐줘야 할 그런 의리가 있지 않느냐?》 어머니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다시 이었다. 《그집 일두 참 딱하니라, 딱해…》

분옥이는 막상 이런 소리를 듣고 보니 발'걸음이 산으로 내키지 않았다. 혼례를 치루고 며느리로 들어 앉은 몸이라면 모르지만 한갓 약혼한 사이로서, 상철이네를 위해 비오는 날 산에까지 올랐다는 소문이 나면 얼마나 부끄러우랴 하는 생각이 들었든 것이다.

창섭이는 누이 동생의 실속은 헤아려 보지도 않고 거저 우뚝벨을 쓴 자기가 민망스러워 한동안 천정을 멍청히 바라보면서 어리둥절해 앉아 있었다.

마침 이런때 문을 열고 거적대기를 잔등에 두른 상철이가 들어 왔다.

《어머니 (상철이는 분옥이의 어머니를 벌써부터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 저의 어머니 병세가 어제 오늘 더 한것 같애요.》 상철이는 분옥이가 내준 베 수건으로 물에 잠긴 머리를 씻으면서 떨리는 어조로 말을 하였다. 《이젠 정신도 못 차리고 자꾸 헛소리만 치시구 계셔요…》

《아무렴 그럴 수 밖에 없겠냐! 천상 가슴 앓이란 음식을 조절해야 하는 법인데 곰던 같은, 겨죽과 송기죽으로 연명해 나가는 험악한 세월에 그 병이 나아질 탁시 없지…. 그래 우리도 지금 너의 집'일을 걱정하던 중이였다.》

《그래서 제가 춘천으로 오늘 떠날까 합니다.》

상철이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창섭이가 그에게로 목을 길게 빼며 반문하였다.

《거기엔 왜?》

《돈 좀 구해 약을 사오려구!》

《거기 누가 있어요?》

여지껏 춘천에 상철이네 친척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 보지 못한 분옥이는 이렇게 물으면서 똥구란 눈을 크게 떴다.

상철이는 잠시 입을 머뭇머뭇 거리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칠촌 벌롯되는 사람이 있어…》

하고 시들 부들하게 대꾸하였다. 그러자 분옥이는 그 어떤 불길한 예감에 갑자기 휩싸인 사람처럼 가슴을 설레이면서

《가지 마세요! 미군놈들의 노략질이 여간만 심하지 않다는데…》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게검츠레한 눈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나서 무슨 결심을 다잡았는지

《저의 분홍 치마를 드릴께 읍에 내다 파세요, 약 몇첩 값은 될꺼에요!》

하며 상철이와 창섭이,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치어다 보는 것이였다. 상철이는 코'허리가 시큼해 오는 그런 뜨거운 정을 느끼면서 그냥 앉아 있기가 되려 가슴 아픈듯 벌떡 일어섰다. 시집올 때 입으려고 작년 가을에 마련한 그 치마가 분옥이에게 얼마나 귀중한 물건인가를 상철이는 잘 알고 있었든 것이다.

《아니야, 춘천에 있는 그 량반은, 종전엔 우리 아버지 신세도 더러 졌대. 그러니 사정 좀 봐 줄께야!》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 문밖으로 나간 상철이는 다시 문으로 얼굴을 들여 밀고 닷새후에 돌아 오겠다는 것과 그 동안 자기 어머니 신변 좀 돌봐 달라는 부탁

을 전하고 뿌연 비'밭 속에 형적을 감추었던 것이다.

× ×

무일푼한 상철이는 기차를 못타고 사흘동안 줄창 걸어서 춘천에 당도했다.

그가 향한 것은 친척네 집이 아니였다. 아니, 춘천에 아버지의 칠촌 벼릇되는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았다. 어머니가 위독하게 되자, 혈액 은행으로 피를 팔려 가자는 것이 그의 작정이였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분옥이 앞에서 차마 입밖으로 나오지 않았든 것이다. 이튿날 상철이는 피를 팔아 돈을 받았다.

점심때였다. 혈액 은행에서 거리로 나온 상철이는 현훈증에 걸린 사람처럼 몸을 비틀거리면서 시장으로 향했다. 간판을 크게 내부친 한약방에 가느니 보다 시장안에 점포를 차려 놓고 약을 파는 그런 시골 늙은이들에게 가는 것이 약값을 덜 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였다.

그러나 시장엔 그런 약장사가 없었다. 그래서 어찌할까 하고 몸을 쭝그리고 앉아서 머리를 싸쥐고 가빠오는 숨을 돌리고 있든 상철이는 사람들이 왁작하고 떠들석하는 소리에 머리를 들었다.

정미소 주변에 무리를 지어 앉아 있든 사람들이 안에서 주인이 나오자 서로 밀치며 그에게로 다가서려는 것이다.

그들이 쌀자루를 제가끔 내어 흔들며 겨값을 차츰 높이 부르는 것으로 보아 춘천에서도 기근은 혹심한것 같았다.

상철이는 겨값이 자기 고장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함을 알고 싶은 호기심에 이끌리였다. 그래서 그리로 가서 사람들이 부르는 값을 들어 보았다.

상철이의 가슴은 철렁 내려 앉았다. 맨 높이 부른 값이 자기 고장에서 보다 겨 한말에 백환이나 더 높은데도 정미소 주인은 아직 다른 고장에 비해 싸다, 싸다 하면서 팔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때 불의의 총소리가 울려 시장안을 잠잠하게 만들었다. 정미소 앞에서 주인을 보고 아우성치든 무리들도 눈이 휑뎅그레 해져서 뒤를 돌아 보았다.

험상 궂게 생긴 미군 병사 두명이 그들에게로 가까이 왔다. 그리고 다짜고짜 그 자리에 앉으라고 호령하면서 그들을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상철이의 귀엔 집을 떠날 때 분옥이가 걱정스럽게

《미군놈들의 노략질이 심하다는데!》

하던 말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까닭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였다.

사정인즉 이러하였다. 미군 병사들은 방금 전에 시장안에서 스리를 당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스리'군이 바로 상철이네들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하기에 그들중 스리'군을 잡아내지 않으면 자기들이 잃은 10만 환을 련대 책임으로 물어내야 한다는 것이였다.

그러나 아무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아니 그런 스리'군이 있을리 만무였다, 스리당했다는건 미군 병사들이 꾸며낸 소리였든 것이다.

미군 병사들은 위협 끝에 정미소 앞에 모였든 초라한 사람들의 몸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맨 구석에 앉아 있든 소녀이 돈 5백환을 떼우기 싫어서 슬쩍 빠져 나가려다가 엉둥이를 채우고 도루 주저 앉고 말았다.

사람들은 겨를 사려고 마련해 온 돈을 몽땅 털리였다. 미군 병사가 상철이의 웃도리 안주머니에서 천으로 꽁꽁 싼 돈을 꺼내려 할때 그의 사지는 부르르 떨리였다. 요 하루 이틀내로 피를 다시 팔 기력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빈 손으로 집에 내려 가면, 어머니는… 하는 생각이 들어 돈을 빼앗기는 것이 죽기보다 더한 고통으로 가슴을 터지게 하였던 것이다. 얼굴이 새'파래진 상철이는 치를 바르르 떨면서

《안되오! 이건 내 피값이요!》

하고 소리치며 자기의 웃도리 안주머니에 쑥 들어온 손을 탁 뿌리쳤다. 그러자 군중은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으나 그것도 한 순간이였다. 미군 병사 둘이 달라붙어 상철이를 끄집어 내가지고 권총으로 즉살시킨 것이였다.

상철이의 이런 한 많은 죽음에 대한 소문이 10리밖 읍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창섭이네 마을에까지 들린 것은 상철이가 객사한지 이틀만이였다.

상철의 시체를 거둘 사람은 이 세상에 분옥이네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분옥이의 분홍치마를 팔아 려비를 꾸려가지고 황황히 춘천으로 온 그들은 지금 시가지를 멀리 떨어진 공동묘지 산 기슭에 상철이의 시체를 묻고난 뒤였다.

× ×

시가지에서 기적소리가 빽—빽—울리자 그들은 일어섰다. 누리엔 어스크레한 황혼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창섭이는 삽을 메고 분옥이는 곡괭이를 들고 맥없이 걸음을 옮겨 산기슭을 감도는 강가로 내렸다. 다리를 건너서 오고가는 사람들은 없었다. 다리는 좁고 길이가 짧지 만께 높았다. 그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목재 란간을 잡고 서서 우두커니 강밑을 내려다보고 있던 분옥이가 샛파래진 입술을 지긋이 깨물면서

《오빠!》하는 바람에 앞을 트럭트럭 걷고 있든창섭이는 걸음을 문뜩 멈추었다. 분옥이의 기릇한 얼굴 만면에 어린 싸늘한 기운과 그의 눈에 비낀 추상같은 빛은 그가 무슨 행동을 각오했는지 말하여 주었다.

분옥이는 다시 한번 《오빠!》하고 낮윽히 부르고 나서 머리를 팩 돌려 란간우로 넘어 뛰려 하였다. 그러나 바람을 안은 그의 치마폭은 비호처럼 달려든 창섭이의 손에 잡히고 말았다.

《분옥아, 분옥아!》다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있는 누이 동생을 일으켜 붙안고 창섭이가 소리치는 소리였다. 《분옥아!》 분옥이는 한참후에야 숨을 후—하고 몰아 쉬면서 정신을 차렸다. 그러자 그는 상철이의 시체를 갓 만난 때처럼 대성 통곡하는 것이였다.

《오빠, 전, 저는 가겠어요!》

《아니, 넌 자살해서 누굴 누굴 기쁘게 만들려구 그니, 응? 살아서 살아서 응, 상철이 원쑤를 갚아야지! 응, 미군놈들과 싸워야지!》

분옥이의 통곡 소리도, 창섭이의 격동된 어조도 조만간 다리에서 떠나지 않고·밤의 고요를 깨치면서 어두운 누리에 퍼져 갔다.

로력과 행복

새 해에 들어 서면서 편집부는 잡지《청년 생활》첫호에 《그가 가야 할 길은?》이라는 제목으로 지상 토론을 제기하였다. 이 지상 토론은 많은 청년들 속에서 광범하게 토의되였다.

지상 토론이 제기되자 편집부에는 량강도 풍산군 하지경리 조 성욱 동무를 비롯하여 로동청년, 농민 청년 등 각계 각층 청년들로부터 500 여 통에 달하는 지상 토론 원고들을 보내여 왔다. 그 중에서 평남 순천군 평리 농업협동조합원 김 옥순 동무외 10 여 명의 원고를 게재하였다 그리하여 경훈, 순애, 영옥 동무들에 대한 따뜻한 충고와 조언들을 주었다. 이 동지애에 넘치는 조언들은 우리 지상 토론의 주인공들을 참된 생활에로 인도하는데 큰 방조를 주었다.

이제 편집부는 지상 토론을 맺으면서 《로력과 행복》에 대한 편집부의 글을 다음에 게재한다.

—편집부—

행복이란 무엇인가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행복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생각하여 왔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것을 행복이라 생각했고 애인과 사랑을 속삭이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한 것을 행복이라 생각했고 또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행복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은 구구했다.

행복에 대한 관점이 아무리 구구하다 해도 그것은 크게 두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부르조아지의 관점에 선 행복이며 다른 하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프로레타리아적 행복이다.

부르조아지들의 최대의 행복은 돈과 향락이다. 부르조아지들은 자기들의 저주로운《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은 남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데서 일종의《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오늘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를 보라. 미제는 자기들의《행복》을 위하여 남조선 인민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는가. 오늘 남조선의 수백만에 달하는 절량 농민들은 살'길을 찾아 도시와 농촌에서 류랑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피 땀으로 지어 놓은곡식을 빼앗기고 초근 목피로도 연명할 길 없어 쓰러져 가고 있다. 그러나 미제는 남조선 인민들의 피와 목숨의 대'가로써 불어 가는 돈주머니를 보고《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어느 도시에서 있은 일이다. 한 청년이 어떻게 하면 백만 장자가 될 수 있을가 하고 궁리하였다. 하루는 그가 생명 보험 회사에 찾아가서 자기 어머니를 생명 보험에 넣었다. 다음날 그 청년은 자기 어머니를 먼 도시에 있는 자기의 친척에게로 려객 비행기를 태워 보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탄 비행기는 떠난지 한참 후에 공중에서 폭발이 되였다. 아들은 그 길로 생명 보험 회사에로 달려가 보험료를 탈 수속을 하였다. 사실인즉 이 폭발 사건은 백만 장자가 되고 싶은 이 청년이 자기 어머니의 트렁크에다 폭발 장치를 한데 기인된 것이였다.

이렇게 착취 계급들의 행복관은 철두 철미《자기의 탐욕을 위하여서는 타인을 희생시키라》라는 개인 리기주의에서 출발한다.

부르조아지는 또한 녀성을 노리개와 같이 희롱하며 유린하는 것을《행복》으로 삼고 있다. 오늘 미제가 강점하고 있는 남조선에서 그 얼마나 많은 녀성들이 그들의《행복》을 위하여 희생되였으며 롱락당하고 있는가!

이와 같이 부르조아지들의 행복관은 개인 탐욕과 향락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프로레타리아트의 행복에 대한 관점은 이와 정반대 된다. 프로레타리아트의 행복은 자기 계급과 자기 민족의 리익으로 부터 출발한다. 프로레타리아트의 최고 목적은 착취와 억압이 없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 건설보다 더 큰 리상이 없으며 그를 위하여 싸우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그러므로 수많은 혁명가들은 이 숭고한 목적을 위하여 부르조아지들을 반대하여 지하에서, 감옥에서 굴하지 않고 싸웠다. 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사형장에로 끌려 나가는 순간에도 혁명가를 높이 불렀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일찌기 김 일성 동지는 북조선 민청 제3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오늘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의 운명을 해결하는 엄중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는 우리는 자기를 행복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국의 운명과 우리 후생의 장래가 이 엄중한 시기에 사는 우리가 우리 조국의 운명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함에 달린 까닭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복된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조국의 장래 기초를 닦아 놓는 사람들이며 우리 조국의 장래 운명을 타개하는 조국 건설의 역군이기 때문입니다》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된 행복이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위대한 사업에서 자기의 창조적 로력과 재능을 다하는 것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런 사업에서 자기의 력량을 공헌하며 조국과 인민의 신임을 획득하였을 때 이 보다 더 큰 행복이 어데 있겠는가! 오늘 우리 인민의 최대의 숙망은 조국의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혁명 임무 가운데서, 조국이 요구하는 사업에서 전력을 다하여 창조적으로 로력하는것—이것이 우리 시대의 청년들의 리상이며 행복이 아닐 수 없다.

어데서 행복을 찾을 것인가

행복이란 자기 맡은 사업과 일터에서 열성을 다하여 보다 가치있는 공헌을 하는 것으로 삼아야 하며 그 속에서 찾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도시에서 일하는 것만이 의의가 있고 농촌에서 일하는 것은 천한 것으로 생각하며 그곳에서는 자기의 행복을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혁명이란 몇개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수백만의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의 공동 로력으로써만 이루어진다. 어떤 로력을 막론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다같이 영예롭다.

《모든 것을 당에 바치여》의 저자 오 운탁은 항일 전쟁 시기 신4군에 참가하면서 전선에 나갈 것을 열렬히 희망하였다. 그러나 사령부는 그에게 후방에서 총을 만들 과업을 주어 무기 수리 공장으로 보냈다. 그는 조직이 주는 위임을 접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로동자들은 한개의 라사못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중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다. 라사못은 작은 것이나 그것이 하나만 없어도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 갈 수 없다. 그러므로 개인의 감정에 맞는 일을 찾을 것이 아니라 사업이 요구한다면 총을 만드나, 총을 잡으나 모두다 혁명을 위한 것인데 저울질 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보는바와 같이 개인은 혁명에 있어서 한개의 라사못이다. 혁명은 매개의 라사못이 자기의 위치에서 훌륭히 움직여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 직업에 따라서, 일터에 따라서 그의 의의가 작고 크고 할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참된 행복이란 개인의 안일한 생활에 있지 않다. 만약 생활 목적이 개인의 안일한 생활과 향락에만 있다면 그 생활은 너무나 빈약하고 우울할 것이다. 참된 행복은 전 인류와 자기 민족과 자기 계급의 행복속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동무들 가운데는 보수를 많이 받아 부유한 생활을 하는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동무들은 어느 지방 어느 직장이 물질적 대우가 더 좋은가부터 따진다. 그래서 한 곳에 안착되여 열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여기 저기 떠 돌아 다닌다. 심지어 어떤 동무들은 국가 공공 재산을 도적질하여 개인 향락에 소비한다. 보수라는 것은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하여 받게 되는 것이며 개인의 보수는 국가의 부가 증대됨에 따라 증대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생활 수준을 높일려면 자기 맡은 사업 분야에서 정실하게 일하여 국가의 부를 증대시켜야 한다. 국가의 형편과 일반 인민들의 생활 형편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기만 잘 살 수 있을가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야 말로 행복의 기본이라 생각한다. 사랑이란 생활의 한부분이지 그의 전체는 아니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자면 우리 사회의 리익과 결부되여야 한다. 사랑이란 조국을 위한 로력과 투쟁속에서 맺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사상과 리상이 합치되여야만 진정한 사랑이 될수 있다. 장편 소설《두만강》의 주인공 씨동이는 옥이를 사랑한다. 그러나《옥이의 안존한 소극적인 성격》으로 혁명가인 씨동이는《아무리 생각하여야 옥이는 혁명 투사로서 결합할수 없는—어데까지나 가정적 규방 녀자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그리하여 씨동이는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또 피차간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사랑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란 사회 발전과 떨어진 저속한 개인 향락적인 사랑인 것이 아니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공동 로력 속에서 맺어지는 견실한 사랑인 것이다.

행복은 로력속에서 이루어진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행복된 사람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난관과의 투쟁을 거쳐서 행복을 만들어야 하며 투쟁을 쟁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로력과 투쟁—이것은 우리가 행복을 쟁취할수 있는 유일한 담보이다. 우리는 오늘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전쟁후 우리가 로력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드라면 오늘과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위대한 학자나 발명가나 작가들에게 있어서도 성공의 열쇠는 결국 로력이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인류의 스승 칼.맑스는《자본론》을 쓰기 위하여 1,500 여 권의 서적을 참고했으며 매 책마다 필기했다. 레브. 똘쓰또이는 《전쟁과 평화》를 쓸때까지 집에는《완전한 하나의 도서관이 갖추어졌다》고 그는 말했다. 파제예브는《청년 근위대》를 쓸때에 그가 수집한 자료의 무게는 수백근이나 되였다.

오늘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쏘련 청년들을 보자.

사회주의 건설에 들어 설 때 쏘련은 실로 곤난한 형편에 처해 있었다. 7년간의 제국주의 전쟁과 공민 전쟁을 겪고난 쏘련의 산업은 1920년 당시에 1913년에 비하여 7분지 1로 격감되였으며 농산물은 2분지 1로 감소되였다. 당시 쏘련은 자본주의의 포위 속에 있는 유일한 나라로서 외국의 원조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곤난한 조건밑에서 쏘련 인민들은 오직 자기들의 영웅적 투쟁과 창조적 로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였던 것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한 생활도 전후에 조성된 난관과의 투쟁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시기를 보자! 3개년 계획은 인류 력사상에서 그 류례가 없는 파괴 상태로부터 그를 다만 원상대로 복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롭게 장비하는 것이였다.

이 거대한 과업은 자재, 자금, 식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부족되는 형편에서 없는 것은 만들고, 부족한 것은 절약하는 간고한 로력과 투쟁속에서 진행되였다.

행복은 로력과 난관을 통한 투쟁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더 큰 행복은 더 큰 난관과의 투쟁이 요구된다. 우리의 보다 큰 행복은 사회주의 기초 축성을 위한 제1 차 5개년 계획의 초과 실행을 위하여 일체 재능과 지혜와 창조적 로력을 바쳐 공헌하는데 있다. 개인의 리익을 집단의 리익에 복종시켜 로력하자! 그러면 조국은 더욱 부강해질 것이며 우리의 매개 청년들도 행복해질 것이다.

보천보의 불'길



리 나 영

로씨야에서의 위대한 10월 혁명의 승리는 전 세계 로동 계급에게 자본의 철쇄로부터의 해방의 길을 가리켜 주었다. 특히 오래'동안 제국주의의 노예적 압박과 착취하에 유린되였든 동방의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 인민들을 각성시켰으며 그들의 민족적 자유와 독립을 위한 해방 운동의 불'길을 일으켰다

이리하여 10월 혁명은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의 새 시대를 열어 놓았다.

19세기 후반기 이후 일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렬강의 침략적 마수가 조선의 민족적 독립을 위협하고 있을때 우리의 애국적인 선조들은 외래 침략자들과 국내의 부패한 봉건 통치 제도를 반대하여 온갖 형태의 구국 투쟁을 계속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의 애국적 투쟁은 당시 조선의 미숙한 사회 경제적 조건하에서 로동 계급과 같은 혁명적 지도자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아직 맑스—레닌주의와 같은 백전 백승의 혁명적 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한 데서 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 전개할 줄 몰랐으며 또한 강력한 국제 혁명 력량의 지지와 성원이 없었으므로 실패를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오직 로씨야에서의 위대한 10월 혁명의 불'길만이 조선 인민에게 해방의 길을 가리켜 주었으며 광활한 전망을 열어 주었든 것이다. 10월의 위대한 불'길은 우리 인민에게 백전 백승의 무기인 맑스—레닌주의를 가져다 주었는바 이것은 조선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승리적 발전에 획기적 전환을 이루게 하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의 선진적 로동자, 농민 청년들과 진정한 애국자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자기들의 강력한 사상적 무기로 하고 전체 조선 인민들과 함께 위대한 10월의 산아인 쏘련에 자기들의 희망과 기대와 전투적 정신의 원천을 두고 그에

의하여 고무되면서 수십 여 성상의 어려운 고비 고비를 싸워 이겼든 것이다. 그 중에서도 1930년대 이후 김 일성 원수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 지도된 항일 무장 투쟁은 10월 혁명이 가리킨 해방의 길을 따라 우리 나라 민족 해방 운동을 가장 높은 단계로 발전시켰다.

김 일성 원수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대륙 침략 전쟁을 개시함과 관련하여 조선에 대한 파쑈적 폭압 정책을 감행하는 환경속에서 조선 혁명이 처한 국내외 정세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옳게 분석 파악하고 조선 민족 해방 투쟁을 성과적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전 시기의 평화적 투쟁 방식을 주로하는 그러한 투쟁 형식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투쟁의 적극적 형태 즉 인민적 무장 투쟁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인민의 혁명 력량을 집결하고 이미 국내외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전개되고 있든 근로 대중의 폭동적 투쟁 형태를 일반화하고 조직화하며 그것에 의식성을 부여함으로써 조직적인 강력한 무장 투쟁을 전개할 데 대한 로선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김 일성 원수는 이때까지의 조선 민족 해방 투쟁의 온갖 결함을 극복하고 민족 해방 투쟁을 승리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민족 해방 운동의 지도적 핵심인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집결하고 그들의 대렬을 단련 육성 확대하여 진정한 맑스—레닌주의 당을 창건하여야 하며 공산주의자들의 령도하에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광범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로동 계급의 령도권을 확립하여야 할 것을 판단하고 이러한 과업들을 무장 투쟁과 결부시켜 해결하는 로선을 수립하였다.

또한 김 일성 원수는 항일 무장 투쟁을 통하여 조선 민족 해방 투쟁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 밑에 쏘련을 선두로 한 국제 혁명 력량과 특히 공동의 원쑤 일제를 반대하여 궐기한 중국 인민의 투쟁과 튼튼히 결합시켜 국제적 련대성을 강화할 데 대한 로선을 수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 일성 원수는 무장 투쟁과 통일 전선 운동을 통하여 국내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들의 일상적인 정치 경제적 투쟁을 계속 강화 발전시킬 것을 예견하였다.

당시 이와 같은 조선 인민의 정치 경제적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킨 김 일성 원수의 무장 투쟁 로선은 맑스—레닌주의 전략 전술을 우리 나라 혁명 운동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가장 정확한 로선이였다.

그리하여 김 일성 원수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애국적인 로동자, 농민 청년들을 규합하여 1931년부터 항일 무장 대오를 결성하고 온갖 곤난과 애로들을 극복 타개하면서 영웅적인 무장 투쟁을 개시하였다.

김 일성 원수에 의하여 조직 전개된 항일 무장 투쟁은 처음부터 적들의 악랄한 군사, 정치, 경제적 공세에도 불구하고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의 창설, 무장 대오내 공산당 및 공청 조직의 주도적 역할, 광범한 반일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의 보장,

중국 인민들과의 공동 투쟁의 전개 등 제 대책과 김 일성 원수의 탁월한 군사적 지도에 의하여 급속히 강화 발전되였다. 그리하여 1934년에는 통일적 무장 부대로서의 조선 인민 혁명군을 창건하였고 1935년에는 조국 광복회를 조직함으로써 항일 무장 투쟁은 그후 더욱 확대 발전되게 되였다.

이런 정세하에서 김 일성 원수와 그 전우들은 1936년부터는 조 만 국경에 진출하여 장백 근거지를 창설하고 국내 조국 광복회 조직들과의 긴밀한 련계 밑에 고국에의 본격적인 진격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그중 1937년 5월 무산 지구 전투에 뒤이어 1937년 6월 4일에 전개된 보천보 진공 전투는 그 대표적인 것의 하나이였다.

이날 김 일성 원수는 친히 조선 인민 혁명군의 일부 대오를 인솔하고 압록강을 건너 일제가《철통같다》고 호언 장담하던 국경을 돌파한 후 적의 국경 수비의 중심지의 하나이든 함남 갑산군 보천보 (현재 량강도 보천군 보천읍)을 습격하였다. 이 전투는 이미 김 일성 원수의 지도하에 이 지대에 조직되였든 《조선 민족 해방 동맹》, 《조국 광복회》 의 국내 조직체들과의 긴밀한 련계하에 진행되였다.

이때 보천보를 습격한 조선 인민 혁명군은 일제의 군사, 경찰, 행정, 통신 기관들과 영림서, 권업 모범장 등 일제 기관들을 파괴 소각하고 적의 군경들을 격멸 소탕하여 심중한 타격을 주면서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강도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강점한 후 총독 정치를 실시하여 조선 동포들을 유린 학살하고 있다. 우리 조선 동포들은 놈들에게 피와 땀으로 된 재산을 모주리 략탈당하여 비참한 식민지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되였다. 뿐만 아니라 놈들은 우리 민족을 제2차 대전의 선봉대로 하여 중국을 침략하는 전쟁의 대포밥으로 하려 하고 있다.

우리 조선 민족은 생사 존망의 최후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우리들은 자기 민족의 살'길을 개척하고 인민 생활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싸우는 조선 인민 혁명군이다. 우리들은 6-7 년간 만주 광야에서 일본 제국주의와 필사적 투쟁을 통하여 그들에게 치명적 타격을 준 것은 세인이 다 인정하는 바이다.

본 군은 조선에 있는 애국 지사들과 열혈적 본 군 용사들의 강력한 군은 단결 우에 조선 총독부와 직접 싸울 목적으로 함남 북 일대에 원정하게 되였다. 가련한 동포 형제들! 속히 출동하여 반일 민족 통일 전선에 단결하여 각종 투쟁으로써 본 군의 유격 투쟁에 호응하라! 하루 빨리 강도 일제 통치를 전복하고 진정한 조선 인민의 정부를 수립하는데 매진하자!

1937년 6월

북 조선 원정대 사령 김 일성》

이 포고문은 당시 일제의 파쑈적 식민지 통치하에서 신음하던 조선 인민들에게 큰 감동을 일으켰으며 시달릴 대로 시달린 우리 인민들에게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었다. 또 이때에 유격 대원들은 상기 포고문과 함께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을 인쇄한 삐라를 수많이 인민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열화같은 선동 연설로써 인민들을 반일 투쟁에로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압박받고 천대받든 보천보 시가와 그 부근 인민들은 감격과 기쁨에 넘쳐 곧 유격대원들과 합류하여 일본 경찰, 관리들과 그 주구들을 격멸 소탕하였다.

보천보에서 패배의 쓴 맛을 본 적들은 그후 수치를 만회하기 위하여 각지에서 비상 동원한 군경들을 집결하여 대 부대로 김 일성 원수 유격 부대를 추격하려 하였으나 또다시 장백현 간상봉 전투에서 유격대에게 섬멸적 타격을 받고 패주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보천보 전투 승리에 대한 소식은 번개처럼 전국 각지에 퍼져 갔다. 당시 일제의 압박과 천대속에서 신음하던 조선 인민들은 용솟음치는 감격과 흥분으로써 이 소식을 맞이하여 기쁨에 찬 환성을 올렸다.

보천보의 총소리는 일제의 가혹한 군사 경찰 통치하에서 억압 유린당하여 암담하던 조선 강토의 침묵을 깨뜨렸으며 보천보의 홰'불은 조선 인민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며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은 더욱 커다란 력량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뵈여 주었다.

그리하여 보천보 전투의 승리는 조선 인민들에게 해방에 대한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었으며 앞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주어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들을 반일 투쟁에로 더욱 고무 추동하여 주었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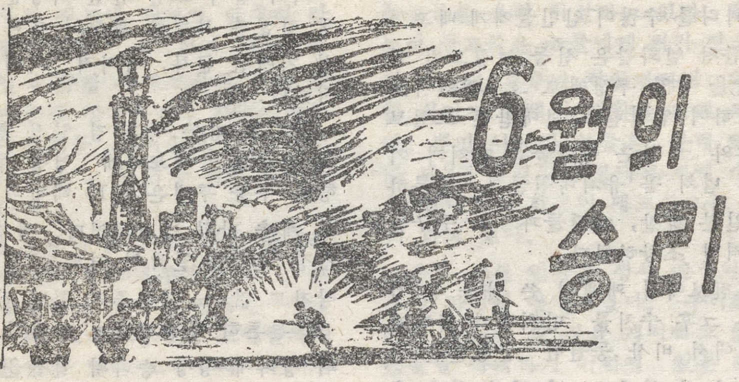
이와 같이 조선 인민 혁명군의 고국 진군과 보천보 전투의 승리는 당시 거대한 군사, 정치적 의의를 가지였다.

보천보 전투 이후 김 일성 원수와 그 전우들의 지도하에 영용 무쌍한 항일 무장 투쟁은 8.15 해방의 날까지 계속 강화 발전되였다.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일제의 여하한《대토벌》작전도 맑스—레닌주의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고 위대한 쏘련의 성과에 항상 승리의 원천을 두고 있든 조선 인민 혁명군의 투지를 꺾지 못하였으며 그의 정의의 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 인민 혁명군이 예견하였던바 대로 조선 인민 혁명군은 위대한 10월의 산아인 쏘베트 군대의 결정적인 원조밑에서 쏘베트 군대와 함께 원쑤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을 해방시키고야 말았든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 인민의 고상한 애국적 전통과 열화같은 혁명적 전통을 높이 시위하였다.

우리 민족 해방 투쟁 사상에 영원히 빛나는 김 일 성 원수 령도하의 항일 무장 투쟁과 그의 혁명적 전통은 오늘 조선 로동당의 령도하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에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 인민들의 가슴 마다에 고귀한 자랑과 영광스러운 전통으로 영원히 살아 있으며 항상 우리의 위업을 승리에로 더 한층 고무 추동하여 주고 있다.

1930년대 항일 유격 투쟁 실기



6월의 승리

김 일 신

보천보에로! 국내 진공의 행군을 하던 유격대원들은 아름드리 이깔 나무 숲속을 지나 실개울이 졸졸 흐르는 20도구 골안 막바지에서 소휴식을 하였다.

《어느새 벌써 휴식이야! 50리 절반도 못 왔을텐데》

공청 출신인 제7련대 대원 병주는 뒤로 휴식을 전달하고는 속새밭에 주저 앉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20리가 뭐야! 산을 셋이나 넘어 오구서》

뒤에서 오든 강 동무가 개울물을 마시며 말을 했을 때에야 병주는 지형을 살펴 보고 50리 길은 착실히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사실 병주는 산을 셋이나 넘으면서도 힘든줄 몰랐고 오늘 따라 행군 속도가 느린것만 같이 생각되였든 것이다.

그것은 비단 병주만이 이런 생각을 한것이 아니라 오매에도 잊지 못한 그리운 조국에로 진공한다는 감격과 기쁨으로 하여 전체 대원이 느낀 공통된 감정이였다.

소휴식을 한 후 유격대원들은 계속 행군하여 이날 (6월 2일) 저녁 압록강에서 25리 지점인 23도구 구시골안 《사모밑》이란 벌목장을 지나 《큰절수》어구의 부락의 뒤쪽 고지인《제비둥이》등판에서 야숙을 했다.

다음날 (6월 3일)아침 길 안내를 자원하여 나선 벌목 로동자들과 함께 선발대는 떠났다. 그리고 주력부대는 저녁 아홉시 23도구 뒤'산을 내려 선발대가 놓은 떼'목 다리를 건너 보천보 바로 뒤'산인《곤장덕》숲속에서 첫밤을 지새웠다.

6월의 싱그러운 풀 향기와 산뜻한 송진 냄새가 떠도는 숲속에서 대원들은 오손 도손 고향 이야기를 하였다.

어머니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 선조의 분묘가 있고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과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 그들이 주고 받는 이야기 속에는 기쁨과 행복속에 가슴이 잠기는 지난날의 즐거운 추억도 있었지만 그 보다 일제 침략자들에 대한 저주와 원한에 사무친 울분이 더 컸다.

《왜놈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데는 어디나 다 마찬 가지겠지만 이런 국경지대에 사는 인민들의 고생이야 말로 말이 아니지. 보나 마나 보천보는 더 할께야.》

강 동무는 불'빛이 나지 않게 손으로 가리운 담배를 조심스럽게 피우며 이렇게 말했다.

병주는 강 동무의 말을 들으며 산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적막한 산 아래에서는 닭 우는 소리가 들려 왔다. 어둠의 장막을 뚫고 비치는 등잔불'빛이 한 두개 보였으나 잠시후 꺼져 버리고 쌀쌀한 바람만이 불어 왔다.

강 동무의 말과 같이 국경 거리인 보천보는 세월이 흐를수록 왜놈들의 행패가 심해 갔다. 산림 보호구가 생기자 썩은 나무를 줏어다 불을 때기만 하여도 허가없는 짓이라고 주재소에 끌려 갔고, 금융 조합이 생기자 정든 집과 농토를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는 농민들이 늘어만 갔다. 국경 경비 도로 보수다, 포대 건축이다, 경비 전화선 가설이다 하면서 하루도 부역에 동원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심지어는 주재소 소장의 생남 축하 연회 기부금까지 징수하는 등 수십 가지의 가렴 잡세로 하여 인민 들의 가난은 점점 심해만 갔다.

그러나 인민들은 적들의 혹심한 야만적 탄압과 식민지적 착취와 경찰 통치의 박해 속에서도 조국 광복의 휘황한 앞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굳건히 살았다. 인민들은 백전 백승하는 김 일성 항일 유격대의 감격스러운 승리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신념과 빛나는 래일의 희망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받았고 유격대의 국내 진공을 일일 천추로 고대하였다.

《어서 날이 밝아라!》

부풀어 오르는 가슴의 흥분속에서 아무말도 없이 산 밑을 내려다 보든 병주는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벌써 잠이든 강 동무의 곁에 자리를 잡고 배낭을 배개삼아 베고 누웠다. 그는 밤 하늘을 바라 보며 누워 있다가 (오늘밤은 고향 사람들의 곁에서 자는구나…)하는 흐뭇한 감정에 휩싸여 눈을 감았다.

밤 하늘의 총총한 별들은 빨찌산들의 꿈을 지켜 반짝이였다.

다음날 (6월 4일 아침)

국내 공작원인 박 달, 박 금철 동지들로부터 보내온 보천보 략도를 손에 들고 보시든 김 일성 원수께서는 농민으로 가장한 병주외 2명의 대원들에게 임무를 말씀 하신후

《해 지기 전에 정찰을 끝내고 도착해야 하오. 각기 자기 임무를 위해 개별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하고 지시를 주시였다. 정찰 대원들은 산을 내려 보천보 시가지로 향했다.

정찰 대원들은 산을 내리자 각기 자기 맡은 방향으로 헤여져 보천보 앞강인 가림천을 건넜다.

병주는 장터로 모이는 인민들 속에 섞여 보천보 거리로 들어 갔다. 5월 단오 직전 장이라 해서 그런지 장마당은 자못 흥성거렸다.

병주는 장마당을 한바퀴 돌아 주재소 주위를 샅샅이 정찰하고 아래'거리로 내려 가다가 음식점 앞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이놈아! 낮 부터 무슨 술이야! 오늘 여기서 촌놈들은 술이나 먹지 못해》

한손에 닭을 든 순사놈이 근 50이 넘어 보이는 로인의 옆구리를 구두'발로 걷어 차고는 욕설을 퍼부으며 다시 음식점 안으로 들어 갔다.

《이놈의 세상이 어서 망해야지 제놈들은 대낮에 술을 처 먹으면서 두 돈 주고 사는 음식도 못먹게 해! 죽일놈의 새끼들…》

다른 한 로인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순사놈에게 얻어맞고 분을 참지 못하여 음식점을 보고 있는 자기 친구의 팔을 끌고 장마당 쪽으로 걸어 갔다. 음식점에서는 술 취한 노래'소리와 웃음 소리가 들려 나왔다.

병주는 잠시 동안 서 있으면서 지나 가는 사람들로 부터 오늘 산림 보호구 주사보가 이동되여 송별 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찰 대원들이 산으로 돌아 온 것은 점심 때가 지나서였다. 정찰 대원들은 주재소를 위시하여 산림 보호구, 면 사무소, 농사 시험장, 금융조합 등 일제의 기관들을 상세히 정찰하고 돌아 왔다.

정찰 대원들로 부터 적정과 지형을 보고 받은 김 일성 원수께서는 각 진공 부대에 명령을 전달하시고 선전부대원들에게는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과 삐라 산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신후 전체 대원들에게 전투 진행중에 있어서 인민들의 생명 재산을 절대 보호하라는 말씀을 하시였다.

밤 열시경, 유격대원들은 산을 내렸다.

《원쑤놈들을 한 놈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대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조국에 대한 끓어 넘치는 사랑과 함께 원쑤에 대한 증오의 불'길이 황황 타 올랐다.

제1 진공 부대가 외등이 가물거리는 주재소 앞에 도착하였을 때 가림천 강변 황철 나무 밑에 자리잡은 지휘부에서는 《땅!》하는 신호총이 울리였다.

사격 신호의 총소리는 침묵을 뚫고 메아리쳤다. 그 여음이 아직 사라지기도 전에 주재소 정문 앞에서는 기관총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였다. 이와 함께 아래'거리에 있는 산림 보호구도, 농사 시험장도, 우편소도, 금융 조합도, 면 사무소에서도 총소리는 콩 볶듯 터지였다.



병주는 주재소에서 무기와 탄약을 로획한후 전우들과 함께 주재소에 불을 지르고 거리로 나왔다.

벌써 거리는 감격에 들끓는 인민들로 가득차 있었다.

캄캄한 밤 하늘은 불'빛으로 휘황하였다. 불패를 자랑하던 적들은 반항도 못하고 죽어 넘어지고, 도망치고 인민들은《김 일성 장군 마세!》, 《우리 유격대 만세!》, 《조선 독립 만세!》를 소리 소리 쳤다.

그 기쁨에 끓어 넘치는 함성은 국경의 밤'거리를 진감하며 울려고 울려 퍼졌다.

《우리 장군님에게로!》

늙은이도, 학생들도 김 일성 원수의 주위로 모여 들었고 유격대원들을 만나면 말보다 눈물이 앞서 두 손을 부여잡고 흔들기만 하였다.

병주는 로획한 보총을 두 자루나 메고 강 동무와 함께 탄약 상자를 맞들고 거리로 나오다가 자기 앞으로 홰'불을 들고 뛰여 오며 만세! 를 부르는 두 로인을 만나 인사를 하였다.

《로인님! 낮에 순사놈에게 얻어 맞은 것이 아프지 않습니까?》

병주는 로인의 손을 쥐고 흔들다가 그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시나요》

로인은 천만 뜻밖이라는 듯한 표정으로 병주를 보며 되물었다.

《내가 낮에 보았지요》

《우리 령감은 그놈한테 채운 것이 응혈이 졌는지 갑자기 허리를 잘 못쓰던 전데 이렇게 막 뛰질 안소이까!》

그의 부인은 손질을 해가며 단숨에 말을 하고는 친 아들을 만난듯이 병주와 강 동무를 어르쓸며 어쩔줄을 몰라 했다.

병주와 강 동무는 두 로인과 함께 김 일성 원수가 계시는 곳으로 갔다.

잠시 말을 끊었든 어머니는 다시 말을 하며 걸었다.

《글쎄 그놈의 수비대 대장놈은 얼마나 어리석소. 유격대원들이 같은 조선 사람들을 죽인다구? 그래 제 놈들에 고자질 하라구?》

그 어머니는 코'방귀를 뀌며 오늘 낮에 있은 일에 대하여 말을 시작하였다.

이야기는 이런 것이였다. 수비대 대장놈은 이동되여 가면서 이 거리 인민들을 학교에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했다.——김 일성 공산군이 보천보에도 올 수 있다. 그러니 인민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어느때라도 즉시 주재소에 알려야 한다. 미리 알려 두는 것은 김 일성 공산군은 보기만 해도 무섭고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인다…— 고 하는 내용이였다는 것이다.

《내 나이 50이지만 더 오래 살아서 왜놈들이 망하여 조선이 독립되는날을 보구야 말겠소. 빨찌산 어른들!》

자기 부인의 말이 끝나자 곁에서 걷고 있든 로인은 병주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옳은 말씀입니다. 로인님 바로 저분이 김 일성 장군이십니다. 장군님이 령도하시는 우리 유격대는 언제나 왜놈들과 싸워 이길 것입니다.》

병주는 로인의 말에 흥분한 어조로 대꾸하면서 군중속에 계시는 김 일성 원수를 알려 주었다.

그 분께서는 저마다 홰'불을 추켜든 수많은 군중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면서 붉은 기'발이 휘날리는 높은 연단에 오르며 연설을 하시고 계시였다.

《…조선은 죽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원쑤의 머리우에 복쑤의 불을 질러야 합니다. 다 같이 혁명의 불'길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이 불'길만이 조선 사람의 앞길을 밝혀 줍니다. 조선 사람들이여! 힘을 뭉치여 왜놈들을 우리 땅에서 몰아 냅시다. 손에 총칼을 힘있게 잡고 원쑤와 싸웁시다》

연설이 끝나자 환호성은 다시금 천지를 진감하였다.

《김 일성 장군 만세!》

《우리 유격대 만세!》

《조선 독립 만세!》

두 로인은 군중들과 함께 만세를 웨치며 군중속을 뚫고 들어 갔다.

보천보 전투는 력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승리의 행군을 알리는 나팔소리는 울리였다.

병주는 군중속에서 두 로인을 찾아 인사를 하였다. 홰'불이 비치인 두 로인의 눈에선 두 줄기 눈물이 흘러 나렸다. 병주는 거수 경례를 하려다 모자를 벗고 머리 숙여 공손히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대렬속으로 뛰여 들며 그도 눈물을 씻었다.

인민들은 강'가에까지 유격대원들을 환송했다. 《곤장덕》 중턱까지 올라왔을 때 병주는 산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보천보의 하늘은 충천하는 불'길로 하여 붉게 타올랐다. 그 불'길을 거쳐 별이 반짝이는 남쪽 하늘엔 조국의 휘황 찬란한 앞날이 내다 보였다.

자유와 규률에 관한 이야기

〔문〕 얼마전 우리 초급 단체 일부 민청원들 사이에서는 자유와 규률은 서로 모순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론의가 있었는데 해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우선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사람들이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고 무엇이든 자기의 의사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데 그 말이 옳습니까?

〔답〕사람이 아무런 구속이나 제약도 받지 않고 사람의 의지가 절대로 자유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참다운 자유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연과 사회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던지간에 사람의 의지와는 독립한 법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법칙을 알지 못한다면 그동안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며 대단히 부자유할 것입니다. 례를 들어 우뢰, 홍수, 질병이 왜 생기는지 모르는 동안은 사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점차 자연과 사회의 객관적 법칙을 알아내고 자연을 정복하며 그것을 사회의 리익을 위하여 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되였습니다. 즉 옛날 사람들은 벼락을 도저히 피할수 없어 번개치는 것을 무서워 했지만 지금의 우리들은 높은 건물마다에 피뢰침을 가설함으로써 그것을 능히 피할수 있지 않습니까!

〔문〕 그러나 그것은 자연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례이고…사람들의 사회 생활에선 사람들 자신이 여러가지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규칙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답〕 지금 동무는 국가 법률, 로동 규률, 사회 질서 등 여러가지를 념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규정, 규률, 규범들은 사람들의 행동에 이러저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규정, 규률, 규범들이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누구의 리익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규률에는 계급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적 소유가 생겨나고 계급이 생긴후 사회는 압박하고 착취하는 지배 계급과 압박 당하고 착취 당하는 피지배 계급으로 나뉘게 되였습니다.

지배 계급은 피착취 계급을 더욱 효과적으로 착취하고 그들의 반항을 진압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고 법령을 제정했으며 여러가지 규칙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피착취 대중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한가지 례를 들어 노예 사회에서는 노예주가 마음대로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여 있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유 세계》라고 떠들기를 좋아 하는데 억만 장자들의 《자유 세계》이지 근로 인민들

에겐 《암흑 세계》입니다.

미국식 자유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의 남조선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사실상 주인 노릇하는 것은 미국놈들입니다. 그런데 미국놈들은 남조선에서 아무런 구속도 제약도 받지 않고 남조선 인민들을 략탈하며 학살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주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미국 군대들이 떼를 지어 부락을 습격 략탈하고 조선 농민들을 학살하고서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 있은 일이 아니라 요지음 신문에서 계속 폭로되고 있는 바와 같이 남조선을 강점하던 첫날부터 그랬든 것입니다.

실로 오늘 남조선 인민들에게는 굶어죽고, 말라 죽고, 감옥에 갇치우고, 략탈당할 《자유》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자면 이러한 사회적 압박을 없애야 합니다.

자유에 대한 인류의 념원은 오직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가서야 계급을 소멸하고 착취를 소멸하며 압박을 소멸하고 빈궁을 소멸하며 무지 몽매를 소멸함으로써 인류에게서 자유를 빼앗는 온갖 근원을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가 없고 사회 발전의 법칙을 인식 파악한 사람들의 목적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인민 경제를 부단히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복리를 부단히 향상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인 것은 바로 인류의 자유라고 할 수 있으며 인류의 진실로 자유로운 생활의 력사가 비로소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화국에서의 법령, 로동 규률, 사회 질서들은 어떠합니까?

〔답〕우리 공화국에서는 나라의 주인이 인민으로 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법령, 내각 명령, 기타의 규칙, 사회 질서 등은 모두 인민의 공동한 리익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례로 우리 공장, 기업소는 인민들의 것이며 그 곳에서 일하는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모두 주인답게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며 더욱 질이 좋은 물품을 더욱많이 만들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생산이 국가를 위한 것이며, 국가를 위한 것은 곧 자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로동 규률은 로동자들의 이러한 애국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의 규률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자각적인 것이며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이러한 규률과 질서를 지키는 데서 아무러한 구속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규률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집단의 리익에 해를 주는 사람으로써 사회적 비난을 받습니다. 그와 반면에 규률을 준수하는 사람은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는 높은 책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적 존경과 신임을 받는 것입니다.

〔문〕물론 우리 공화국의 법령이나 규칙, 사회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집단의 규률을 지키자면 개인의 리익을 희생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답〕 우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 공화국에서는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배치되지 않고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리익이 완전히 희생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개인의 욕망과 집단적 규률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개인의 목전의 리익을 희생시켜야 합니다. 례를 들어 어느 공대 졸업생이 자기 개인 사정으로 평양에서 일하는 것이 요구되더라도 만일 국가에서 필요하여 어느 광산 개발에 파견한다면 이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국가의 리익과 자기 자신 및 자기 후대들 까지 포함한 장구한 개인 리익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목전의 리익이 일치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조국과 인민의 전체적 리익을 참으로 귀중히 생각하는 사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개인의 목전의 리익을 희생시킵니다. 우리는 혁명 선렬들의 고귀한 자기 희생적 투쟁에서 그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국과 인민의 리익,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용감히 개인의 작은 리익을 희생시키고 투쟁하며 혁명의 규률에 복종했던 것입니다.

〔문〕 물론 우리는 그런 고귀한 모범을 받아서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초급 단체에서 때때로 볼 수 있듯이 민청 규률을 자주 위반하며 로동 규률을 위반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답〕 그것은 그들이 아직도 낡은 사상 의식에 사로 잡혀 우리 사회의 규률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개인 리기주의에 사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례를 들어 우리의 공장, 기업소에는 엄격한 로동 규률이 있습니다. 일부 로동 청년들은 로동 규률을 위반하고도 별로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집단 생활과 집단적 활동이 조직되는데 이 생활에 잘 참가하지 않거나 그 규률을 위반하면서도 그것은 자유가 아닌가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향은 부르조아 사회에서 습관된 《나만 좋으면 되지 다른 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 없다》는 개인 리기주의 사상의 잔재입니다. 이렇게 개인 리기주의 사상으로부터 집단의 규률을 위반하면 다른 성원의 자유에 해를 끼치며 사회 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우리 나라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는 청년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귀한 민주주의와 자유는 우리 인민이 장구한 기간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 법령을 자각적으로 엄격히 준수하며 로동당의 정책을 받들고 우리 사회 제도를 공고히 하며 우리 나라의 자유 독립과 번영할 미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더욱 큰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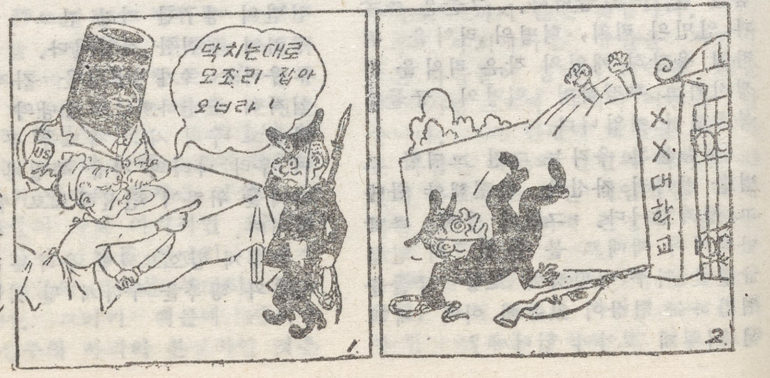
미제는 조선인민의 원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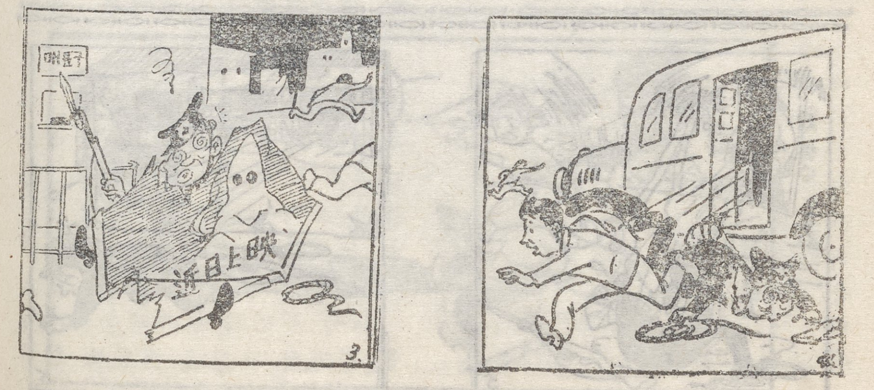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그의 무궁한 번영은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가장 크고도 절박한 념원이다. 그러기에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모든 생활과 투쟁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그의 무궁한 번영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우리의 이 숭고한 지향을 가로 막고 이를 백방으로 방해하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이루 말할수 없는 악랄한 폭행과 살인귀적 마수로써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을 기아와 빈궁, 고통과 죽음에로 내몰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 파주에서 감행한 미군의 집단적인 강도 행위, 그후 계속되고 있는 평화적 주민들에 대한 야수적 만행, 그리고 미 제국주의자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남조선에서 극심한 식량난으로 수많은 형제들이 처참한 기아 상태에 빠지고 있는 사실로 하여 미제에 대한 조선 인민의 분노는 더욱 격렬해 가고 있다.

실로 조선의 곡창으로 불리우든 남조선에서, 심지어 기름진 땅으로 유명한 호남 평야에서, 그것도 일년내 등때가 휘도록 농사를 지은 농민들이 눈도 채 녹기 전부터 절량이 되고 지금에 와서는 초근 목피마저 없어지고 부황병으로 신음하며 아사자가 속출하는 이 참혹한 사실을 어찌 격분 없이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남조선에서 우리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이 무서운 고초에 대하여 수수 방관할 수 있겠는가. 북반부 인민들과 청년들은 남조선에서 동포 형제들이 당하고 있는 비참한 처지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거니와 금번 공화국 내각에서 남조선 절량 농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백미 10만석을 보낼 것을 결정한 것도 바로 동포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며 공화국 정부의 진정한 인민적 시책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공화국 내각의 이 조치를 열렬히 지지하며 하루 속히 우리의 지성 고인 쌀이 남조선의 동포들에게 전달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오늘 남조선 인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불행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조국 남반부에 기여든 미제 침략자들의 12년간의 통치의 결과인 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통치의 결과로 오늘 남조선의 산업과 농촌 경리는 여지없이 파괴되고 360만명의 실업자, 반 실업자와 20여 만의 전재 고아들이 먹을 것과 잠자리를 찾아 거리와 마을

시세없는 강제 징집 (남조선에서)





을 방황하고 있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청년 학생들이 훌륭한 회의실의 높은 연단에서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자기들의 보다 행복한 미래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한다. 그러나 미제 침략자들이 강점하고 있는 남조선에서 청년 학생들은 민족을 사랑하고 평화를 말한 《죄》로 감옥과 교수대로 끌려 가지 않으면 안된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노래할 때 미제 야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남조선에서 청년들은 일자리와 농토를 빼앗기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우리 학생들이 여름이면 역두마다에서 인민들의 꽃묶음을 받으면서 백두산으로, 금강산으로 휴양과 탐험을 떠날때 인간 백정 미제가 둥지틀고 있는 남조선 학생들은 동족 상쟁을 위한 대포밥으로 끌려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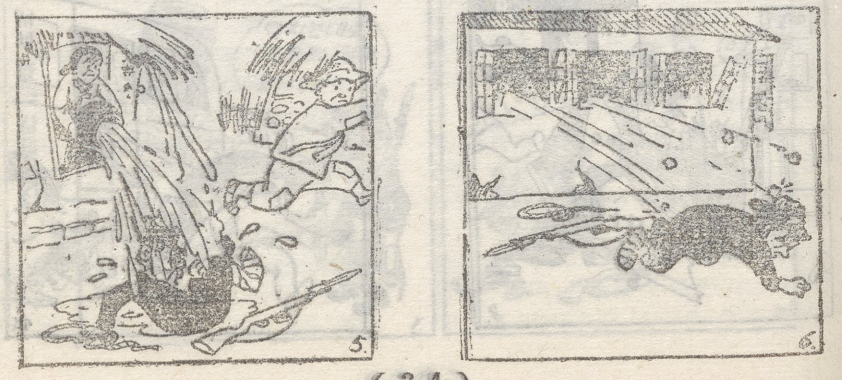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기여든 첫날부터 오늘 이 시각까지 조선 인민을 학살하지 않은 날이 없으며 조선 인민의 재물을 파괴 략탈하지 않은 때가 없다. 조선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은 수차에 걸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제의에 원쑤들은 총칼로 대답하면서 수많은 조선 인민을 학살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땀으로 이룩한 모든 재부를 재'더미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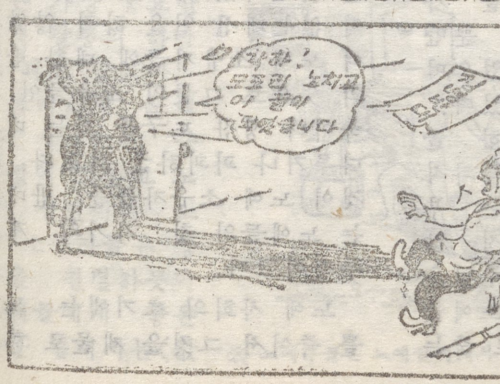
사람 잡이를 도락으로 삼는 미제 야수들은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막대에 몸을 의지한 로인들을 발'길로 차며 어머니의 젖꼭지에 매여달린 갓난 아기를 빼앗아 우물에 처 넣으며 첫 애기를 배고 그 걸음조차 조심스러운 임신부의 배에 총창을 박으며 희열을 느끼고 있다.

이 천인 공노할 미제 야수들의 만행에 대하여 조선 사람의 피를 이었고 민족의 량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어찌 참을수 있겠는가. 그러나 털끝만한 민족적 량심마저 저버린 리 승만 역도는 이를 합리화하며 상전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 미제에 대한 조선 인민의 증오와 저주의 목소리가 높아 가며 남반부 인민들의 신음 소리와 구원을 부르짖는 그들의 목소리가 높아 가는 이 시각에도 미제와 리 승만 역도는 전쟁 도발과 인민의 수탈에 광분하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을 유도 무기의 기지로 만들려 하며《유엔 사령부》를 남조선에 끌어들일 것을 획책하면서 광대한 농토를 농민들로부터 빼앗아 군사 기지로 만들며 또다시 대학 졸업자들의《병역 기피자 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괴뢰군 증강에 미쳐 날뛰고 있다. 그리고 계속《북진 전쟁》을 웨치면서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을 파괴할 목적으로 간첩들과 파괴 암해 분자들을 북반부에 잠입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미제 침략자들은 조선 인민의 모든 불행의 화근이다. 미제는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이며 최대의 적이다. 미국 침략군은 조선에서 물러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도, 남조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생각할 수도 없다.

전체 청년들은 우리의 최대의 민족적 과업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빈궁과 기아속에 신음하는 남조선의 동포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자. 조국 통일의 강력한 물질적 힘이며 우리 혁명의 원천지인 공화국 북반부 민주 기지를 더욱 철옹성같이 다지며 우리 행복을 남조선의 우리 동포들과 하루속히 나누기 위하여 증산하며 절약하자. 그리고 높은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원쑤들의 간첩 파괴 음모를 제때에 적발 폭로하며 원쑤들이 발붙일 틈을 주지 말자. 각계 각층 청년들은 통일과 단결을 일층 강화하며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철석같이 뭉쳐 우리의 숭고한 임무—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에 우리의 모든 힘과 정력을 바치자. 이것이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 침략군을 조선에서 물러가게 하는 것이며 남조선 동포들을 구원하는 길이다.





원광수 그림

사회발전 이야기

노예사회 편

계급도 착취도 국가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 오든 원시 공동체 사회가 무너진 후 계급 사회가 생겼다.

최초의 계급 사회는 노예 사회였는데 노예 제도는 인류 력사에서 가장 가혹한 첫 착취사회였다.

노예 사회에서 기본 계급은 노예와 노예 소유자였다. 노예 사회에서 노예 소유자들은 나라의 주인이였으며 모든 생산 수단(토지, 로동 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생산 로동의 담당자인 노예들까지도 자기들의 완전한 소유물로 하고 있었다.

노예 소유자들은 노예를 가축과 같이 부려 먹었을 뿐만 아니라 팔고 살수도 있었으며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다.

그들은 노예들이 생산한 물건을 하나도 남김 없이 독차지 하였고 다만 노예들에게는 부려 먹기 위하여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먹을 것만 주었을 따름이다. 그런 결과 노예들은 일하다 영양 부족으로 죽는 것이 보통이였다. 사실상 노예는 말하는 도구의 처지에 있었다.

인류 력사에서 가장 발달된 노예 사회였든 로마에서는 로동 도구를 세 종류로 나누었다. 즉 말 못하는 도구 (보습, 도끼 등), 반 벙어리의 도구(말은 할 수 없으나 울 수는 있는 소, 말 등), 말하는 도구 즉 노예였다.

노예들은 아무리 부지런히 일하여도 자기들에게 차례지는 것은 몽둥이나 채찍밖에 없었다. 때문에 노예들은 로동에 대하여 아무런 흥미도 가질 수 없었고 로동을 싫어하고 작업을 태만하였다. 그들은 주인이 없는데선 일을 하지 않았으며 노예 소유자들에 대한 반항의 뜻으로 그들의 소유물인 가축이나 생산 도구를 되는 대로 다루거나 파괴하군 하였다. 이것이 노예 소유자들을 반대하는 노예들의 첫 시기의 계급 투쟁이였다.

노예 사회의 초기에는 노예를 죽여서 그것을 제물로 하여 제사를 지내는 일도 있었으며 또는 노예 소유자가 죽으면 그의 무덤 한편에다 그의 노예들을 산채로 매장하는 일도 있었다.

즉 당시에는 죽은 후에 가는 《저 세상》 에서도 노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노예 소유자의 무덤에다 노예를 산매장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순장이라고 한다. 순장하는 제도는 노예들이 더욱 더 필요하게 되면서 부터 차츰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유습은 오랜 기간 남아 있었다.

노예들은 또한 노예 소유자들의 《산 상품》 이기도 하였다.

빈번히 일어나는 전쟁에서 잡혀 오는 포로들과 파산 몰락당한 채무자들도 모두다 노예로 팔리였다. 그리고 해적들도 사람들을 잡아다가는 노예로 팔군하였는데 당시 노예의 매매는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의 하나로 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노예를 매매하는 큰 시장이 있었고 노예 상인이나 노예 소유자들은 상품을 진렬하듯이 노예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서는(값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시장에 내다 팔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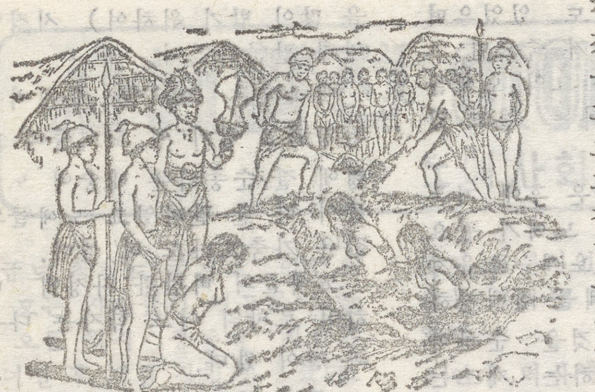
매매되는 노예들 중에서는 건강하고 힘이 센 노예들과 명령에 잘 순종하는 애숭이 노예들이 더 잘 팔리였고 노예들의 값은 가축보다도 더 쌌다.

노예들의 비참한 사정에 대하여 로마의 어느 학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몸을 씻는다거나 살을 가리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이 불상한 사람들, 이들을 보고는 이 비참한 운명에 동정하지 않을수 없다. …여기에서는 병들고 로쇠한 로인이나 약한 녀자에 대한 관대심과 자비심이라고는 찾아 볼수 없다. 모든 사람은 로동을 강제하는 채찍아래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죽음에 이끌리지



※ 노예주들은 노예들에게서 생산물을 모조리 략탈하고 있다.



※노예주 무덤 옆에 노예들을 순장하고 있다.

않고서는 그들의 고통과 곤궁이 끝나지 않았다»

무서운 채찍과 몽둥이의 위협하에 강제 로동을 당하는 노예들은 틈만 있으면 도망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노예 소유자들은 노예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별별 수단을 다 썼다. 그들은 노예들이 도망하여도 쉽게 붙잡기 위하여 불에 달군 쇠'도장으로 노예들의 잔등이나 이마에 찍기도 하였으며 또는 목에다 노예의 패쪽을 달기도 하였다. 그리고 광산같은데서 일하는 노예들에게는 발목을 쇠사슬로 매 놓았는가 하면 제분소에서 일하는 노예들에게는 가루를 훔쳐 먹지 못하도록 입에다 굴레를 씌우기까지 하였다.

노예 소유자들은 몽둥이나 채찍을 휘두르면서 노예들을 강제 로동만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한 자기들의 노리개로 향락의 도구로 삼았다. 노예들 중에서 가장 이쁘게 생긴 녀자들은 노예 소유자들에게 항상 롱락 당하였으며 힘이 세고 건강한 남자 노예들은 그들의 야수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구경거리의《연기가》로 리용되였었다. 즉 노예 소유자들은 극장안에서 노예들끼리 서로 칼이나 창으로 찌르면서 격투하게 하고 그들이 피흘리면서 쓰러지는 것을 손뼉 치면서 구경하였고 또는 노예들을 들'소나 사자같은 맹수들과 싸움 부쳐 놓고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서 그들이 쓰러지거나 혹은 맹수가 죽는 것을 보면서 야수적인 쾌감을 느끼군 하였다. 당시 이러한 각종 격투에 종사하는 노예들을 격투사 혹은 투기사라고 불렀다.

노예 사회에서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노예는 더욱 더 필요하게 되였다. 노예 소유자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노예를 많이 잡아들이지 않고서는 생산을 보장해 나갈 수가

없었다. 노예 소유자들은 노예를 얻기 위하여 전쟁을 빈번히 하였으며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과 전쟁에서 정복당한 나라 국민의 대부분을 노예로 만들었다. 전쟁에서 값싼 노예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으므로 노예 소유자들은 더 가혹하게 착취할수 있었고 수많은 노예를 리용하여 더잘 살수 있게 되였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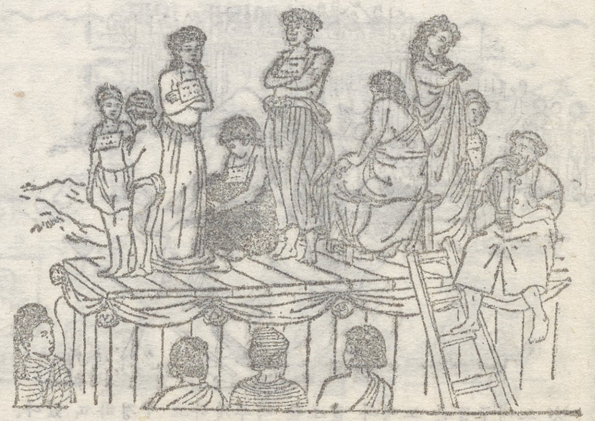
노예 사회는 원시 사회에 비하여 생산력이 훨씬 발전하였다.

노예 소유자들은 수십 수백명의 노예들을 큰 농장이나 수공업소 혹은 광산에서 일을 시킴으로써 여기서는 비록 분업은 없었지만 협동 로동을 조직할 수 있었다. 결과 노예 사회에서는 원시 공동체 사회에 비하여 몇 갑절이나 더 많은 생산물을 낼수 있었다.

노예 사회에서는 원시 공동체 사회 말기에 이르러 발전하기 시작한 농업, 목축업, 수공업 등이 더욱더 발전하여 갔다. 노예 사회의 농업에서는 노예들의 집단적 로동에 의하여 관개 시설들이 비교적 광범히 건설되였으며 곡물을 재배하는 것과 함께 포도원을 경영한다든가 소채원을 경영하는 사업 등도 발전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기본적인 농기구는 쇠로 만든 보습, 나무로 만든 써레, 쇠로 만든 낫 등이 였으며 가축이나 노예를 리용하여 밭을 경작하였다. 특히 는 우에서도 이미 지적하였지만 수천 수만명의 노예를 리용하여 대규모적인 농장을 경영하는 것이 노예 사회 농업의 특징이였다.

농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수공업에서도 많은 노예 로동이 리용되였다. 노예 사회의 수공업장에서는 보습, 괭이, 낫 등 농기구를 비롯하여 의료 기구, 잔, 접시, 유리 등이 생산되였으며 따라서 명주와 비단을 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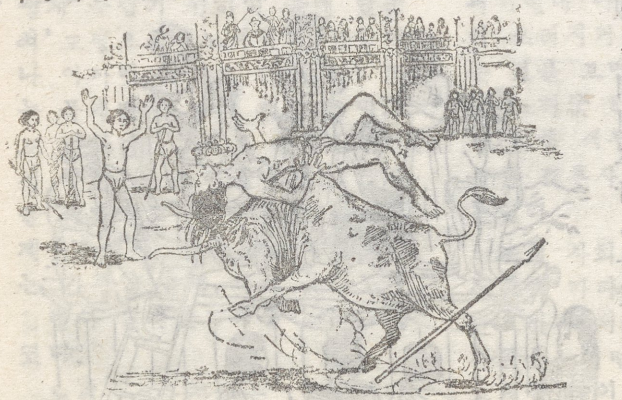


※노예들을 매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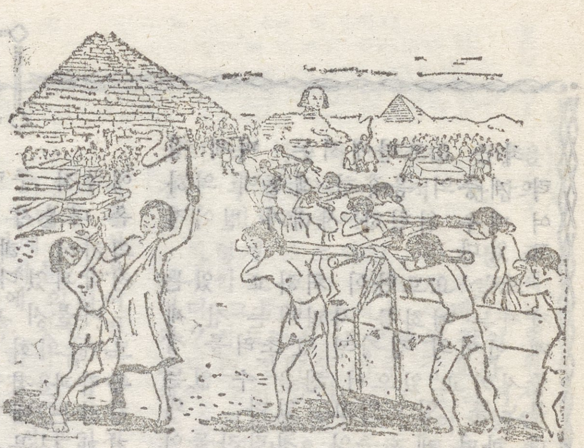
내며 보석, 유리알 등으로 장식품을 만들기도 하였다. 수공업자들은 이 시기 벌써 쇠로 만든 각종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미 원시적이기는 하나 간단한 작기와 야장용 풀무 등도 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예 사회에서 기술이 가장 발달한 부문은 명주와 마단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치품을 생산하는 부문이였으며 이와 함께 무기 제조 부문과 배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였다.

즉 노예를 얻기 위하여 노예 소유자들이 계속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각종 무기 생산 기술이 발전하였는데 검이나 창외에도 투창기, 포석기, 전차 등이 생산되고 있었다. 그리고 해상 무역의 발전과 함께 해상에서 전쟁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여 노예 사회 시기에 벌써 수백명이 탈수 있는 3,000~4,000톤 짜리의 큰 배들이 만들어지게 되였다. 비록 기술이 아직 낮은 수준에 있기는 하였으나 수백 수천명의 노예가 협력하여 로동을 하기 때문에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든 큰 공사들을 노예 사회에서는 능히 할 수 있었다. 오늘까지도 남아 있는 애급의 피라미트라든가 중국에 있는 유명한 만리 장성 같은 것이 그의 실례이다. 애급의 피라미트는 노예 사회 시기 수십만명의 노예들이 동원되여 건설한 왕들의 묘이다. 그중에서 가장 큰 피라미트는 높이 146메터 밑바닥 각변의 길이가 약 230메터나 되는데 이것을 건설하는 데 3개월 기간으로 한번에 10만명씩 동원되여 30년이나 걸렸고 여기에 필요한 큰 돌을 운반하기 위하여 길을 닦는데만 10년이 걸렸다.


※ 노예주들은 노예와 들소를 격투케하고 구경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예 사회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노예 로동을 광범히 적용하였기 때문에 노예 소유자들은 완


※ 노예들을 동원하여 피라미트를 쌓고 있다.

전히 육체 로동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였다. 노예 소유자들은 육체 로동을 하지 않고도 매우 유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육체 로동으로부터 해방된 후에는 노예를 지배하기 위하여 정치, 법률, 군사 등을 연구할 수 있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철학과 과학과 예술 부문에 종사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였다.

이리하여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은 완전히 갈라지게 되였고 노예들이 담당한 육체 로동은 천시되였다. 따라서 착취 계급들이 종사하는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에는 대립이 생기게 되였다. 그런데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이 분리된 결과 한편으로는 육체 로동을 천시하는 악습이 생겨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적으로 정신 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남으로써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

※ 《대만 거리에서》 ※



요르단의 위기

최근 요르단에서는 미제 침략 계층의 음흉한 책동에 의하여 매우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오늘 요르단이 처하고 있는 정세는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인민의 긴장된 눈초리를 집중시키고 있으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왜냐 하면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자기의 민족적 독립과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아랍 인민들의 단결을 파괴하고 그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며 이 나라들에 다시금 식민지 억압의 멍에를 뒤집어 씌워 놓고 지하 부원을 략탈하려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요르단은 작은 나라이다. 그의 면적은 우리 나라의 약 2.4분의 1밖에 안되며 인구는 3백 30 여 만명에 불과하다.

요르단은 락후한 농업 국가로서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 지대이며 공업은 보잘것 없는 형편에 있다. 요르단은 제 2차 대전후(1946년. 3)처음 독립한 나라로서 그전에는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다. 그러나 그의 독립은 이름뿐이고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실권은 사실상 미, 영 제국주의자들이 쥐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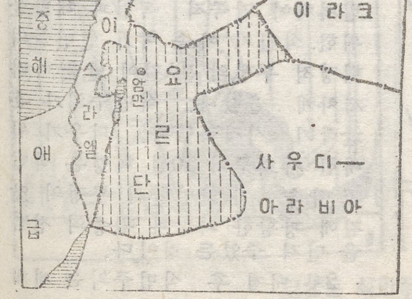
요르단의 위기는 지난 4월 10일 애국적 중립 정책을 실시하여 온 나불시 내각을 왕의 명령에 의하여 해산시킨 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나불시 내각은 작년 가을 요르단 의회 총 선거에서 민족적 독립과 적극적 중립 정책을 지향하는 애국적 력량이 승리한 결과 나불시가 지도하는 민족 사회당을 중심으로 수립된 것이다. 선거 후 나불시 내각은 요르단을 영국에 예속시킨 것을 목적으로 한 영국—요르단 군사 조약을 폐기하였다. 그리고 애급과 씨리아 등 린접된 아랍 국가들과 공동으로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할 것과 침략적《바그다드》조약을 배격할 것을 선포하고 적극적인 중립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동 여러 나라들에 강요되고 있는《아이젠하워 주의》를 폭로 규탄하고 해산 당하기 직전에는 쏘련과 외교 관계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는데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정책들이 제국주의 침략 계층의 마음에 들리 없었다. 특히《아이젠하워 주의》를 배격한 사실은 미 제국주의 침략 계층의 불만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 나불시 내각은 미 대통령의 특사인 리챠즈를 요르단에 초청할 데 대한 미국의 각서를 거부하게 되자 후세인 왕에 의하여 해산당하였다. 그후 왕은 몇몇 정계 지도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내각을 조직할 것을 위임하였으나 국내의 광범한 인민들의 반항에 의하여 성공하지 못하였다.

4월25일 할리디 내각이 인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수립된지 11일만에 다시금 해산된 후 하쉼 신 내각이 수립되였다. 왕은 신 내각 구성을 기하여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정당을 해산시키는 부당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이때를 리용하여 미국은 미리부터 강요하여 오든《아이젠하워 주의》에 예견한 1천만 딸라의《원조》를 주기로 결정하였다.

후세인 왕은 이를 수락하고



그의 대'가로써 애국적 력량을 검거 투옥하는 야만적 탄압의 길로 전락하였다.

이렇게 요르단의 위기를 조장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미제이다. 그들의 목적은 어데 있는가? 지도에서 보는바와 같이 요르단은 전략상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미제는 요르단을 침략적《아이젠하워 주의》에 넣음으로써 애급과 씨리아(이 나라들은 미제 침략을 반대하며 중립 정책을 고수하는 나라이다)사이를 떼여 놓고 이 나라들을 하나씩 손쉽게 격파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제는 소위 1천만 딸라의 원조라는 미명하에 회유 정책을 쓰는 한편 4월 25일 제 6함대를 불란서 항구 칸느 근처로 부터 동부 지중해로 옮겨 군사 련습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그 어떤 야욕도 각성된 인민들은 용서하지 않는다. 요르단 왕에 의하여 강제로 해산당한 민주주의적 정당 지도자들은 지하에서《아랍 독립 전선》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전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은《요르단에서 미국은 손을 떼라》는 목 소리를 높이고 있다. 애급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제의 침략적 행동은 요르단에서도 요르단 인민과 세계 인민들의 단결된 투쟁 앞에 분쇄되고 말 것이다.

멸망의 길을 달리는 식민주의

한때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영원히 번영할 것이며 따라서 식민주의도 그러리라 믿었다. 그것도 그럴것이 시초에는 제국주의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미개한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를 착취할 수 있었으며 대항할 힘을 못가진 미개한 민족들은 침략자들에게 복종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식민주의 력사는 15세기 이후의 소위 지리적 발견의 시기로부터 시작된다.

맨 먼저 식민지를 쟁취하기 위하여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서반아와 포도아였다. 즉 콜럼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후 서반아는 지구의 서방으로 세력을 뻗쳐 북미(北米), 중미, 남미 등의 넓은 땅을 정복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비률빈 땅까지 정복하였다.

포도아는 서반아와 반대로 지구의 동방으로 세력을 뻗쳐 아세아 방면에 상업의 근거지를 만들고 남미의 일부—지금의 브라질을 획득하였다.

이들 식민지 주민들은 미개하여서 서반아와 포도아는 그 어데서든 거의 아무런 반항도 받지 않고 쉽사리 정복할 수 있었다.

1581년 서반아에서 독립한 화란이 세계 무대에 나서면서부터 서반아와 포도아는 차츰 밀리게 되였다. 화란은 북해와 동인도, 서인도에 세력을 뻗치였다. 그러나 화란의 세력도 오래 가지 못하였다. 영국이 나선 것이다.

영국은 16세기 후반기에 북아메리카 바지냐를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1600년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인도를 다스리는데 착수하였다. 영국은 서반아에서 식민지를 빼앗고 후엔 불란서와 경쟁하게 되였다. 그러나 식민지를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서 불란서는 영국에 지고 말았다.

이런후 영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되였다. 그러나 영국의 식민지중 미 합중국이 독립하게 되자 사정은 또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선 독점 자본주의가 흥성하고 식민지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세계는 임자 없는 땅이란 더는 없게 되였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국가들간에 식민지를 쟁탈하기 위한 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는바 그들의 식민지 략탈 경쟁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여 더욱 치렬하게 벌어졌다.

그러나 식민주의 력사는 20세기 초에 이르러 더는 발전의 길을 순탄하게 걸을 수 없게 되였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이 각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종주국을 반대하여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혁명적 투쟁의 불'길이 날을 따라 세차게 올랐다. 식민주의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에 광활한 희망과 필승의 신념을 던져 주었든 것이다.

2차 대전 후 식민주의는 세계 도처에서 허물어져 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세아에서 가장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우리들이 잘 아는바처럼 1945년 8월에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선포되였다. 2년 후에는 3억 8천만의 인구를 가진 인도가 영 제국주의자들의 통치를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였다. 인도의 뒤를 따라 비르마, 쎄이론 및 기타 국가들도 오랜 식민주의의 철쇄를 벗어 던졌다. 1948년엔 중국 인민이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에 뒤이여 월남이 식민지 지반에서 해방되여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 들어섰으며 파키스탄, 캄보자, 씨리아, 라오스, 네팔,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애급, 아프리카에서는 모로코, 수단, 투니샤, 리비아, 에리트레아 등 나라들이 식민지 체계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을 쟁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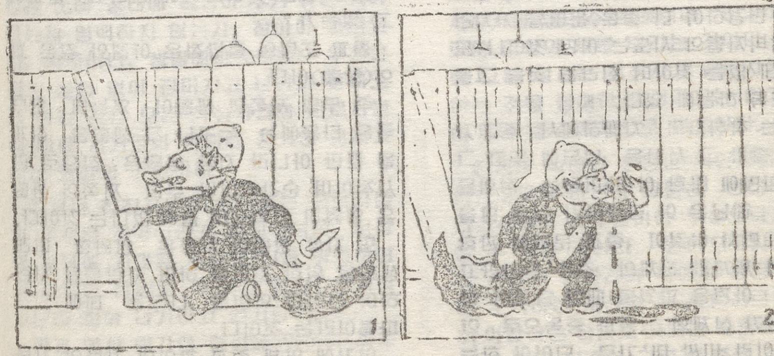
이뿐만 아니다. 애급 인민들의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 영, 불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그들의 승리, 가나의 독립은 아프리카에서의 식민주의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이리하여 2차 대전 후 제국주의자들의 통치로 부터 새로 독립한 나라들의 전 면적은 서구라파 면적의 6배 이상이며 인구는 그의 4배 이상이다.

오늘 식민지 체계에 망라되여 있는 인구는 불과 1억4천500만이다. 여기에는 인도네시아의 서부 이리안, 인도의 고아, 말라이, 싱가포르, 보르네오의 일부 아라비아 반도의 일부 및 기타 태평양과 인도양 상의 조그마한 섬들의 약 1,600만명의 주민들과 아프리카 전 인구의 약80%가 속해 있다.

1939년의 식민지 예속 국가들의 인구가 15억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수세기를 두고 형성되여 비상히 발전하여온 저주로운 식민지 체계가 2차 대전 후 불과1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얼마나 급속도로 허물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다.

오늘의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은 옛적 새로운 침략자를 공포에 질려 바라 보던 그런 인민이 아니다. 오늘날 미국을 괴수로 한 제국주의 렬강은 이미 독립적 발전의 광활한 길에 들어선 인민들을 이전의 식민지 예속국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갖은 발광을 다한다. 그러나 그 어떤 힘도 식민주의 멸망의 길을 막지는 못한다. 애급 침략에서의 영, 불 제국주의자들의 수치스러운 패배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된다.

현대의 식민주의 력사의 발전 행정은 자기의 종국적 멸망의 길을 벌써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코데운 식민주의 최 영 근 그림

종교의 계급적 본질

뻬. 에프. 플로니즈끼

종교적 세계관은 그 매 문구마다에서 사람은 고립 무원하다는 것, 무력하다는 것, 사회 질서 현상은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다.

계급이 발생한 후 종교는 착취자들이 근로자들을 정신적으로 노예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 리용되였다.

착취 계급은 각종 종교적 신앙을 자기의 리해 관계에 맞도록 만들었으며 노예 제도와 착취 제도를 옹호하여 정당화하는데 복종시켰다. 종교는 노예적인 굴종의 사상이다. 종교는 사람들을 가리켜 신의 종복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신의 방조가 없이는, 그의 자비(慈悲)가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고 종교는 말한다. 즉 사람이 어떤 일을 할려면 신에게 기도를 드려야 하며 그 의사에 말 없이 복종하는 길 밖에는 없는 것이라 한다.

이리하여 종교의 사명은 피압박자의 머리속에서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싸우려는 투지와 사기를 꺾어 버리며 현존 질서를 변경하여 더 좋은 운명을 가지려는 피압박자들의 시도는 어떤 것이나 모두 쓸 데 없는 것이며 죄라는 것을 그들이 믿도록 하는데 있다.

맑스는 착취자의 지배하에서 종교가 노는 역할과 그 사명을 념두에 두고 그것을 《인민에 대한 아편》이라는 정의를 내렸다. 레닌은 이 금싸라기 같은 말을 특징지으면서 이것이 종교 문제에 관한 맑스주의 세계관 전체의 주추'돌이라고 하였다. 아편을 피웠을 때의 달콤한 잠의 대'가가 신체의 고통과 중독으로 인한 파멸이란 비싼 대'가로 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래세의 좋은 생활에 대한 믿음이 억압 받는 근로자들에게 주는 위안은 오직 그들로 하여금 암흑한 노예의 운명을 지니게 한다.

레닌은 종교를 《정신의 쌍술》이라고 하였다

레닌은 이 말로써 착취자적 계급 사회에서의 종교의 사명이란 근로자를 기만 우롱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규정하였다.

종교의 사명은 근로자로 하여금 술 취한 상태에 있게 하며 착취 사회에서의 자기 처지를 똑바로 평가하지 못하게 하며 자기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자본의 노예들을 《정신의 쌍술》로 자기 의 인간다운 모습을, 얼마큼이라도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자기의 요구를 파탄시켜 버린다고 레닌은 쓴바 있었다.

사실에 있어서 종교는 무엇을 가르치며 근로자를 어떠한 정신으로 교양하며 그것은 행실이 어떠해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는가?

종교 도덕의 출발점은 아래와 같은 교의(敎義)이다.

즉 무덤 저쪽의 생활이 있는데 모두 죽은 다음에는 누구나 그 생활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상 생활은 참으로 림시적이며 순간적이나 무덤 저쪽의 생활은 영원히 지속되며 끝이 없다는 것이다.

또 지상 생활의 사명은 영원한 미래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며 사람들을 시련하여 선인과 악인을 나누는 데에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일체 종교 교의의 기본의 기본이 있다.

그러면 여기로부터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가?

여기로부터 스스로 나오는 결론은 무엇보다도 먼저 지상 생활—현실 생활에 대하여서는 생각지 말고 무덤 저쪽 생활을 생각할 것이며 지상의 재물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멀리하여야 하며 령혼의 구원에만 마음을 돌리고 천상의 《행복 벌이》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가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천국의 행복은 지상 생활에서 고난을 겪은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것만큼 곤난한 자기 운명에 항의하거나 더 좋은 생활을 얻으려고 노력하거나 지상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더 곤난하게 살면 살 수록 더 좋은바 그것은 그만큼 사후에 영원한 행복을 누릴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난을 당하는 자, 가난한 자, 불행한 자에게는 축복이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고난을 기뻐하라—종교의 기본 명제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이러하다.

묻노니 이러한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필요한가. 억압 당하는 근로자들에 향하여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언제나 근로자들을 노예 상태에 붙잡아 두기 위한 것이라는게 명백하지 않는가. 참아야 한다느니, 복종이니, 생활에서 어떠한 무거운 짐도 불평 없이 질머지고 나가야 한다느니 하는 것은 모든 착취자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자기들의 지배를 공고히 할려고 하는 행실의 규범이다.

종교는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투쟁은 죄악이라고 설교하면서 천상의 보답에 기대를 걸고 자신을 위로하면서 아무런 불평도 말하지 말고 자기의 고난을 참아 나가라고 권고한다.

종교 역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싸운다고 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박애를 설교하며 불행한 자에 동정을 표시하며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한다. 소위 《성서》의 이러 저러한 구절에나 종교의 이러저러한 설교 마디에나 교회 직원들의 이러저러한 말 마디에도 이런 말이 인용되고 있다. 그렇다고 맞장구 칠수 있는가?

종교가 박애이니, 인간들은 누구나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느니, 신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느니 하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종교 설교에서 가난한 자와 불행한 자의 쓰라린 처지에 대하여 적지 않게 탄식도 하고 있다.

그 설교에서는 또한 정직하고 정의롭고 착하다고도 많이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직 말 뿐이다. 착취자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박애하라고 호소하는 것은 근로자를 기만하는 것이며 그들과 그들의 억압자를 타협시키는 것이며 그들의 해방 투쟁을 제지하는 것이다.

가난이 없을 수 없게 하는 사회 질서는 언급도 폭로도 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자에 동정을 표시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눈에 재를 집어 넣는 것이다.

착취자들의 지배하에서 평등할 수 있다고 설교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의식에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이며 허망하고 해로운 환상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설교는 착취자가 근로자를 억압하는 것을 방해한 적이라고는 없고 도리여 그것을 실제적으로 방조한다.

진정한 박애와 평등은 억압자와의 타협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을 반대하는 비타협적이며 철두철미한 투쟁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말만으로써가 아니라 진실로 인간간의 박애와 평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라면 누구나 근로자를 착취 억압하는 한줌도 못되는 자들로부터 인류의 절대 다수인 근로 대중을 해방시키

끼 위하여 싸우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종교로 말하면 계급 사회의 전 력사를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그 억압자를 타도하라고 호소한 적은 한번도 없다.

반대로 종교는 《너의 원쑤를 사랑하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종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옛 날이나 지금이나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적대 계급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의 행복과 향락이 다른 사람의 불행과 암담한 빈궁의 대'가인 곳에서, 근로자가 이룩하여 놓은 모든 재부가 착취자의 것으로 되는 곳에서 무슨 박애와 평등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나의 회견기》라는 아. 엠. 고리끼의 소책자에는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박애와 평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쓴 구절이 있다.

고리끼가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아메리카의 어떤 한 강철왕이 로동자들에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다. 《이곳 지상에서 평등이란 무슨 뜻이 있는가? 오직 노력할 바는 너희들의 신의 면전에서 령혼의 순결성을 서로 비교하도록 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십자가를 참고 메고 나가라 그리고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이 짐이 가벼워 질 것이다. 나의 부하들이여, 신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 이상 너희들은 더 바랠 것 없다》라고,

진정한 박애와 평등을 현실 생활에서 바랠 것이 아니라 조작해 낸 무덤 저쪽 세계의 어떤 곳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다. 이곳 지상에서는 온순하게 자기의 십자가를 짊머지고 나가며 자기의 운명이 아무리 불행하든간에 그것을 달게 여가고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의 억압자들에게도 다 같은 령혼이 있다고 생각하여 자기의 원쑤가 얼마나 천대하고 모욕하든간에 그들과 화목하게 살아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종교에서 말하는 박애와 평등이란 이러한 것이다.

종교의 옹호자들은 종교의 도덕과 호소가 비단 근로자에게만 향하여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노예 소유자들, 지주들, 자본가들에게도 향하여진 것이며 종교가 그들 한테서도 근로자까지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반박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이러한 설교에서 그것이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또 그 설교가 착취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렇다 해서 이것이 사태를 달라지게 하는 것인가?

착취자들도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박애는 할 용의를 항상 갖추고 있다. 그들은 근로자들이 평화롭게 그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그들한테서 일하며 주인은 생활의 모든 향락을 누리며 평화롭게 그들을 지휘할 수 있게만 된다면 근로자들과 영원이 화목하게 지낼 용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박애》는 그들의 비위에 꼭 맞는 것이며 그들은 종교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끝까지 설교 옹호할 용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이러한 박애로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들은 말만으로써가 아니라 실지로 되는 박애를 원하는 것이며 조작해낸 무덤 저쪽 세계에서의 박애가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의 박애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의 권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로동으로 만들어낸 재물을 자신이 쓰는 권리를 위하여 싸우며 또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 위한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근로자들에게서 이러한 권리를 빼앗고 있는 제도, 종교가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제도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종교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정직이나.

정의니, 선이니 하는 것도 계급마다 이 개념에 다른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퍽 상대적인 개념이다.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선인가 악인가, 남의 덕으로 사는 것이 정직한가 않은가, 자본주의 제도가 정의로운가 않은가 등등은 이 문제에 대하여 자본가와 프로레타리아로부터 똑 같은 대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노예 소유자들은 노예에게서 모든 인간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을 가축과 동일시하는 것을 완전히 정당한 신이 준 권리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농노를 소유하고 있든 지주들은 농노《천민》이 해방되려는 일체 시도에 대하여 격분을 느끼고 있었다. 자본가는 로동자와 그 가족을 무자비하게 착취하여 그들에게 실오리 하나 남기지 않고 빼앗아서 자기 소유로부터 초과 리윤을 짜내는 것을 자기의 신성한 권리이며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의식적인 로동자라면 누구나 이러한 것을 참을 수 없으며 이렇게 신성화된 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것을 최고의 정의라고 상당히 인정하고 있다. 이렇듯 모든 자에 다 같이 적용되는 영원한 선이나 악, 정의나 부정의, 정직이나 부정직이라는 개념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 그때 마다 어떤 정의나 정직이 문제로 되고 있는 가를 해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인 것은 계급 사회의 전 력사를 통하여 종교가 노예 소유자, 지주, 자본가의 입으로 이 개념을 설교하고 있었고 따라서 종교가 이 개념에 착취자들에게 편의한 의미를 부여하였다는데 있다.

착취자적 계급 사회의 어떤 시기에서나 종교는 지배 계급의 도덕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지배 계급들은 항상 종교가 없으면 즉 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도덕이 없다고 말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항상 이러저러하라든가 또는 이러저러는 하지 말라는 종교의 명령을 도덕에 대한 자기를 자신이 리해를 엄폐할 가면으로 리용하였다. 이것은 얄만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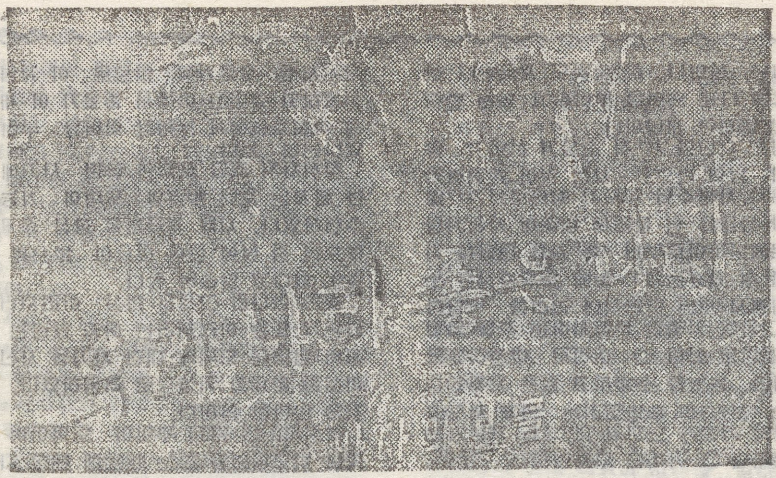
착취자들은 감히 무엇이 도덕이며 무엇이 비도덕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자기 견해를 공공연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면 근로자들의 면전에서 자체를 폭로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일터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자기가 그들의 불구대천의 원쑤라는 것을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의 생활의 모든 고통을 신에 전가하기 위하여 신의 의사로써 근로자 앞에서 자기의 범죄를 엄폐하며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들에게는 신이 필요한 것이다.

부르죠아 사상가들이—만약 신이 없었다면 그것을 고안해 내여야 하였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동아일보 에서 전재》



조선 로동당 중앙당 학교 경제 지리학 강좌

맹 순 제

바다는 아름답다. 더우기 맑고 푸른 하늘을 그윽히 담고 있는 조선의 바다는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기 우리의 선조들은 예로 부터 이 바다를 한없이 사랑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바다는 단지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다. 실로 바다는 무진장한 자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벅찬 희망을 안겨 준다. 동무들이 한번 수경을 들고 바다속을 들여다 보시라! 그러면 동무들은 실로 거기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즉 륙지와 같이 봉우리와 바위들이 솟아 있고 한길이 넘는 미역이 너울거리고 갖은 해초가 풀밭 모양으로 우거진 그 사이로는 비단 같은 고기떼들이 무리를 지어 해염칠 것이다. 바위에는 굴과 섭이 즐비하게 붙었고 감탕에는 빨간 삼바리, 밤송이같은 성게가 어물거린다. 실로 그 속엔 얼마나 많고도 신기한 자원들이 그득차 있는가! 바다야말로 정말 무진장한 천연의 보물고라 할 수 있다.

1. 우리 나라의 바다는 각종 어족들이 가장 살기 좋다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인 바다의 나라다. 우리 나라 근해에는 섬이 많고 굴곡이 심하여 그 길이는 무려 17,000 여 키로 메터에 달한다. 이러한 조건들로 하여 우리 나라는 좋은 어항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바다 속의 지형을 본다면 각종 고기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수심 200메터 내외의 대륙붕(大陸棚)이 각 해안에 따라 널리 전개되여 우리 나라 전체 바다가 훌륭한 어장을 가지고 있다. 이 대륙붕이라 함은 륙지가 바다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낮아진 것이 아니라 해안선에서 멀리까지 서서히 낮아진 것을 말하는데 우리 나라의 바다들에서 그 면적은 실로 75만 평방 키로 메터나 된다.

우리 나라 각 해안의 온도와 해류도 각종 어류를 비롯한 바다의 동식물이 살기 좋게 마련되여 있다. 즉 한류인 리만 해류와 난류인 동조선 해류가 사철 교류하는 동해에서나 서해에서는 각종 한류 난류성 어족들이 사철 번식하며 수온이 언제나 따뜻한 남해에서는 열대성 어족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 바다는 대륙붕권이 매우 발달한 조건에서 부유 생물(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저부 생물이 번식하여 고기들이 먹고 사는 사료들도 풍부하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넓은 간석지와 우리 나라 륙지에 많이 분포되여 있는 대소 하천들과 늪 또는 수력 발전과 관련된 인공 호수 및 저수지, 관개용 물'줄기와 논판들도 이러저러한 수산 자원들이 많을 수 있는 조건으로 되며 더우기 각종 수산물을 양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된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는 모든 수산 자원들이 풍부할 수 있는 훌륭한 자연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2. 우리 나라는 세계적인 수산국이다

그러면 우리 나라 바다에는 과연 어떤 고기들이 회유하며 또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살펴 보자! 우리 나라 수산 생물은 그를 종합하여 보면 어류 552종, 연체(軟体) 동물 130 여 종, 게류 120여 종을 비롯하여 물개, 무라치, 고등 수산 포유류와 갑각류, 파충류, 각종 해조에 이르기까지 실로 1,000 여 종이나 되는데 이와 같은 수족들은 우리 나라 해안과 호소, 하천들에서 살고 있다.

우선 동해를 보자! 삼천리 금수강산에 아침의 첫 인사를 보내며 붉은 태양이 먼즘 떠오르는 이 바다는 특히 수산물들이 많은 곳으로 세계 삼대 어장의 일부에 속한다. 더우기 한류와 난류의 교류가 심하므로 그의 수산물이 극히 다양한바 동해의 수산 자원으로는 명태, 정어리, 고등어, 청어, 가재미, 방어, 낙지, 갈치, 이면수, 련어, 송어, 은어, 도루묵이, 공치, 전어, 멸치, 게, 해삼, 고래, 미역, 조개류, 굴 등이 많다. 다음 52만 여 정보의 넓은 간석지를 가지고 있는 서해안 역시 수심이 얕고 류입 하수들로 인한 륙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조건에서 수온의 년중 변화가 심하므로 그 역시 수산물의 다양성을 이루고 있다. 서해안에서의 주요 수산 자원은 갈치, 조기, 멸치, 새우류, 민어, 병어, 농어, 준치, 삼치, 도미, 가재미, 넘치, 복어류, 양태, 숭어, 뱀장어, 굴, 조개류, 해파리, 김, 소금 등이다. 사철 기후가 온화하고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며 섬이 많아 다도해를 이루고 있는 남해 바다에도 수산 자원은 극히 풍부하다. 제주도 근처에는 아열대성 내지 열대성 어족까지 회유하고 있는데 멸치, 고등어, 도미, 삼치, 메저리, 갈치 참장어, 날치, 대구, 새우류, 굴, 소라, 고래, 포태, 김, 미역 등이 그의 주요 수산 자원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다양한 수산 자원들이 우리 나라의 바다에는 대체로 얼마나 많은가?

수산업이 인민의 소유가 못되고



략탈적인 방법에 의하여 기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든 일제시만 하여도 우리 나라에서는 1937년부터 1941년에 이르는 5개년간에 매년 200 여 만톤 (정어리를 포함하여)의 수산물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당시 세계의 주요 수산국들인 미국은 겨우 159만톤이였으며 영국은 110만톤, 노루웨이는 101만톤, 독일은 불과 67만톤이였다. 다만 일본의 360만톤에 비하면 뒤떨어질 뿐이였다. 그러나 주민 일인당 생산량으로 볼 때 일본도 훨씬 앞서 세계 제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부터 공화국 북반부의 수산 자원은 대체로 어떤 것들이며 또는 얼마나 어획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알아 보기로 하자.

첫째로 들어야 할 것은 우리 나라 동해에서 많이 잡히는 명태를 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들에게 맛나는 각종 료리와 명란젓, 밸젓을 제공하며 비타민 A의 성분을 많이 가진 간유 (약용 식품) 를 풍부히 제공하는 이 고기는 우리 나라 동해안에서 11월 경부터 이듬해의 1월까지가 제일 한창인바 북반부 해역에서만 능히 26만톤을 잡을 수 있다.

그 다음은 고등어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 고기는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가 그의 성어기로써 우리 나라 북반부 해역에서만도 능히 24만톤을 잡을 수 있다.

가재미는 우리 나라에서 사철 잡을 수 있는 고기이다. 우리 나라 공화국 북반부 해역헤서만 하여도 이 맛 좋고 가공하기 쉬운 고기를 4만5천톤은 넉넉히 퍼낼 수 있다.

우리 나라 서해안에는 조기들이 많다. 조기는 생선으로 맛이 좋고 그의 염건품 (이것을 굴비라고 한다) 은 인민들로부터 널리 애용되며 조기젓도 식용에 아주 좋다. 또한 외화 획득을 위한 귀중한 수출품으로 된다. 우리 나라 북반부 해역에서는 이 조기류를 35,000톤은 능히 잡을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들이 잘 아는 굴, 미역, 횟대기, 게, 낙지 바스레기 등을 해마다 1만톤 내지 2만톤 이상씩 능히 잡을 수 있으며 대구, 청어, 이면수, 방어, 공치, 도루묵이, 멸치, 갈치, 민어, 숭어, 새우류, 해파리, 고래, 굴, 갈미, 김, 해삼 등 각종 자원들을 천톤이상 퍼낼 수 있으며 그중 어떤 것은 만톤까지도 퍼낼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북반부 해역에서만 하여도, 현재의 기술적 조건에서 그의 선박 어구만 증가시킨다면 능히 86만4,000톤 이상의 해산물을 해마다 잡을 수 있다.

물론 앞으로 더 과학적으로 자원

량을 산출하고 미개발 자원을 개발하며 새로운 어군과 어장을 탐색하고 적극적인 자원 보호 대책이 진행된다면 어획량은 현재 조사된 수'자의 몇배나 더 될 것이다. 특히 조국이 통일되고 미제의 식민지적 략탈 정책으로 하여 황폐화된 남반부의 수산업이 인민의 소유로 된다면 우리 나라 수산업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어획량도 막대한 수'자에 도달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밖에도 공화국 북반부에는 하천들과 호수, 저수지, 논들이 많다. 지금 북반부 전역에는 장진호, 부전호, 수풍호 등 큰 호수들을 비롯하여 1정보 이상의 호수와 저수지가 152개이며 그의 총 면적은 47,061정보이다. 뿐만 아니라 압록강, 두만강, 청천강, 대동강 등 대소의 하천들도 많다. 만일 이와 같은 호수와 하천들에 담수어 양식 사업을 조직한다면 년산 최저 8,000톤 내지 1만톤 이상의 담수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넓은 간석지를 가지고 있는 서해안에서' 그 유리한 조건을 옳게 리용하여 각종 해조와 조개류, 굴 등을 양식한다면 매년 우리는 여기에서 2만톤 이상의 미역과 5,533톤의 김, 2만톤의 굴, 1만1천톤의 바스레기 등 막대한 량의 생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 나라 수산 자원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제염 (소금 만드는것) 자원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우리 나라의 서해안 그 중에서도 서북해안은 천일 제염(天日製鹽)의 방법에 의하여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바다'물에서 소금, 서슬, 석고 등을 획득하는데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 즉 조석 간만의 차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간석지가 넓으며 일조량이 많으며 평탄한 중평원과 낮은 구릉 등으로 하여 바다와 륙지간의 통풍이 잘 되는 조건에서 천일 제염에 아주 유리하다. 중요 염전 기지로는 평안남도의 광량만, 귀성, 덕동, 남양 등을 비롯하여 평안북도의 남시 등이 있다. 소금은 그 량에서 우리 나라 전체 주민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식료품 가공 공업, 가성 소다 제조, 염산 제조 등 여러가지 공업 부문을 위한

우리나라 중요 수산물의 국제시장 교역 비률

수출품 / 교역품	1t 해삼	1t 생복	1t 하천	1t 김	1t 낙지
량곡 t	50	48	38	34	12
천 m	12100	11560	9250	8000	2890
철판 t	55	21	17	15	5.5

원료로서도 많이 제공된다.

이상에서 우리들은 우리 나라에서 그 얼마나 많은 수산 자원들이 생산되는가를 절실히 깨달았다. 실로 우리들은 세계적인 수산국에 태여난 행복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3. 수산업과 인민 경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6차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원수께서는 《수산업 발전은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수상 동지께서는 아직도 알곡 생산과 축산업이 날로 증대되여 가는 우리 나라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없는 조건하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곧 식량을 위한 투쟁과 같다고 교시하시였다.

과거 우리 나라 인민들은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그의 혹독한 착취로 말미아마 식생활 수준이 매우 낮았다. 따라서 인민들의 식생활에는 오래'동안 동물성 식료품이 적었고 그 대부분이 식물성 식료품이였다. 그 때 왜놈들은 해마다 80여 만톤의 수산물들을 략탈하여 갔으므로 조선 인민은 자기들이 생산한 생선도 마음대로 먹지 못했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수산업은 지금 인민들에게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제공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며 우리의 생활 수준을 더욱 높은 단계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산업은 우리 나라 농촌에 풍부한 어비와 사료를 제공하며 바다에서 나는 각종 화학 원소들 (염소, 나트리움, 마그네슘, 류황. 카리슘, 카룸, 취소, 불소, 붕소 등 40여종)과 어류들은 유지 화학 공업, 비료 제조 공업, 소금 가공 공업, 식료품 공업에 막대한 공업 원료를 제공하고 있다.

로력의 열매

새 원료를 탐구하여

평북 녕변 방직 생산 협동 조합 편정원 채 용립 동무는 개털과 소털을 리용하여 모포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이것을 위하여 그는 참으로 많은 힘을 들였다. 그가 첫 실험에 착수하였을 때였다. 기술 수준이 어린 그는 제직후 기모 공정에서 여러가지 애로에 부닥쳤다. 그러나 그는 조합 관리 위원회 부위원장인 리 동평 동무의 기술적 방조밑에 마침내는 기성 모포지에 못지않는 모포지의 정제에 성공하였다.

그는 우선 털의 가공 공정에서 정련후 털 냄새를 산화 제거하기 위하여 30%의 류산을 산포하였다. 그리고 타면 공정에서는 20%의 솜을 혼합함으로써 털과 털이 맞물게 하였다. 그 다음 2중직으로 짠 표면과 리면에 《쟈카트》를 리용하여 아름다운 문양과 색갈을 넣었으며 낡은 침포를 구입하여 류면기에서의 기모 공정을 완성하였다. 이리하여 채 용립 동무가 만든 모포는 조합에 보급되여 지금 시작품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는 한편 조합에서는 앞날의 본격적인 모포 생산을 위하여 지방 각 학교들과 직장과의 련계 밑에 원료를 수집하고 있는바 년간 2, 700 여 매의 모포를 생산하여 해당 기관에 공급하게 될 것이다.

평북 녕변군 녕변 방직 생산 협동 조합 통신원

장 병 삼

또한 이 수산업은 대외 무역 분야에서도 국가의 수익을 증대시킴에서 아주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각종 고급 어족들을 비롯하여 특수물인 황해남도 연안의 해삼을 비롯하여 낙지, 갈미, 굴, 생복, 해조류, 게살, 새우, 김, 하천, 어분, 어유, 어박, 명란, 운단 등이 외화 획득에서 가치가 대단히 크다. 1956년도 국제 시장에서의 교역 비률을 보아도 해삼 한톤이면 실로 50톤의 량곡과 12,100메터의 면직물, 55톤의 철판을 교역할 수 있으며 하천 한톤에 38톤의 량곡, 9,259메터의 면직물, 17톤의 철판을 교역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이 잘 아는 낙지 한톤에만 하여도 2,890메터의 면직물을 교환할 수 있으며 김 한톤이면 8,000메터의 면직물을, 갈미 한톤이면 6,700메터의 면직물을 교환할 수 있다. 실로 이것은 우리 나라가 장차 세계 민주 시장을 통한 국제적 분업의 견지에서도 전문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문인 것이다.

때문에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에서는 항상 이와 같이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수산업 발전에 커다란 배려를 돌리고 있으며 더우기 지난번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 회의에서는 금후 수산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어로 대책을 제시하면서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매년 60만톤 이상으로 어획고를 높일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면서 당은 이 분야에 가장 진취적이고 새것에 대해 민감하고 헌신적이고도 대담한 청년들이 적극 진출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하였다.

청년들이여! 당의 부름을 따라 바다로 진출하자! 그 곳에서 자기의 재능과 정열을 아낌 없이 바치자! 바다야 말로 청년들의 지혜와 재능과 용감성과 애국주의를 남김 없이 발휘할 수 있는 가장 보람찬 청춘의 활무대이다.

작업의 기계화

덕천 림산 사업소 산하 덕천 류벌 작업소 양륙(揚陸)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 정 국원 동무는 요즘 년 15만원의 리익을 국가에 줄 수 있는 새로운 기계화를 고안하였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이곳 양륙장에서는 해별장까지의 활로 연장 180메터의 거리에 《우인찌》를 설치하고 나무를 끌어 올리군 하였다. 그런데 한번 나무를 끌어 올리고 다시 나무를 끌어 올리자면 《우인찌》줄을 해별장까지 사람의 힘으로 끌고 내려가야만 되였다. 이리하여 작업이 갑절 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로력이 이에 랑비되였다. 그러든 것을 정 국원 동무는 오래'동안 연구를 계속하여 오든 끝에 《우인찌 샤우도》에다 소 도라무를 만들어서 고정시키고 뒤에는 물레 바퀴와 같이 만들어 와이야가 감기도록 하였다. 한편 해별장에는 《보리끄》를 놓고 200여 메터의 폐품 와이야를 근방에서 수집하여 엔도레스식으로 복선 와이야 장치를 하여 회전하게 함으로써 줄이 자동적으로 내려가게 하였다. 이리하여 지금 이 양륙장에서는 1일 4명의 로력과 그외의 자재비 등을 절약함으로써 년간 도합 15만원의 리익을 국가에 주게 되였다.

평남 덕천군 덕천 림산 사업소 통신원

로 용 순

민청원의 임무는 어떤 것입니까 (2)

ㅂ. 《민청원은 로동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며 국가 및 협동 단체의 소유를 애호 절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첫째로 민청원은 로동을 사랑하며 로동 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로동은 신성합니다. 오늘 인류가 달성한 모든 성과는 로동의 결과입니다. 로동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로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와는 달리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하여 성과가 크면 클 수록 우리 건설 속도는 그만큼 빨라지며 우리의 생활도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동을 사랑하며 로동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각적 규률만이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며 증산과 절약을 달성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민청원들은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각종 기술 규정에 정통하고 작업 규률과 표준 조작법을 엄수하며 결근, 지각 등 일체 비규률적 행동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은 로동 생산 능률을 높임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목적이 우리가 잘 살자는 것인데 그러자면 많은 물건을 생산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며 선진 작업 방법을 생산에 도입하며 불합리한 작업 공정들을 합리화하고 기계화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곧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예비들입니다.

그러므로 민청원들은 인민 경제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선진 작업 방법의 도입과 창의 고안 운동을 더욱 확대 강화하며 설비 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농촌 청년들은 농산물의 증산과 가축의 증식을 위하여 특히는 농업 협동 조합을 조직 경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세째로 민청원들은 국가 및 협동 단체의 소유를 애호하고 절약하여야 합니다.

일제때는 공장, 탄광, 철도, 산림 할것 없이 우리 것이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로부터 이것을 애끼고 절약할 생각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민이 정권의 주인이된 우리 나라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공장이나, 철도나, 산림이나 모든 것이 국가 및 협동 단체의 재산으로서 인민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사회인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물질적 원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청원들은 국가 사회 재산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애호하며 그를 더욱 증가시키기 위하여 절약에 힘쓰며 일체 탐오 랑비 등 반인민적 범죄 행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ㅅ. 《민청원은 낡고 부패한 것을 반대하고 새것에 민감하며 사업상 및 도덕상 결함을 시정하여 주기 위한 동지적 비판을 발전시켜야 한다》

첫째로 민청원들은 낡고 부패한 것을 반대하고 새것에 민감하여야 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낡고 부패한 사상은 자본주의 사상입니다. 이것들은 우리들의 사상에도 표현되고 생활과 사업에서도 이러저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로동을 천시하는 것, 특히 농업 로동을 천시하는것, 사회적 의무를 태공하는것, 국가 규률과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것, 국가 사회 재산을 탐오 랑비하는 것, 남녀간의 비동지적 태도, 음주 방탕하는것, 부패한 부르죠아 반동 문화의 여독과 인연을 끊지 않는것,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관료 주의와 형식주의 그리고 낡은 것에 대한 보수성과 비문화적 행동 등 모두다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낡은 사상 잔재들은 사회주의 건설과 우리의 전진을 방해합니다.

때문에 민청원들은 사생활에 있어서나 집단 생활에 있어서 낡은 것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새로운 사상 의식과 고상한 사회주의적 도덕 품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촌에서 사업하는 지식 청년들은 농촌 생활에서 새로운 풍습을 세우며 선진 영농 기술을 농업에 도입 적용하며 아름답고 문화적인 새 농촌을 건설하는 선구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청원들은 부르죠아 반동 사상의 침습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민청원들은 동지 호상간에 있어서 사업상 및 도덕상 결함을 시정하여 주기 위하여 비판과 자기 비판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민청원들은 사회 경험이 적고 사상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국가 사업에서나 개인 생활에서 오유와 결함을 범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유와 결함을 시정하는 방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동지적인 비판과 자기 비판입니다. 만일 어떤 동무가 오유와 결함을 범했을 때 그것을 덮어 둔다면 더욱 엄중하게 되며 나중에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청원들은 자기에게나 동지에게 결함이 있다면 숨길 것이 아니라 제때에 솔직하게 내놓고 비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비판은 어데까지나 솔직하면서도 동지의 결함을 고쳐 주기 위한 건전한 비판이 되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ㅇ. 《민청원은 정직하고 근면하며 동지를 사랑하고 웃 사람을 존경하며 공중 도덕을 준수하며 남녀 청년들 간에 순결하고 건실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첫째로 민청원들은 정직하고 근면한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근면은 조선 인민들이 오랜 력사를 두고 가지고 있는 고상한 아름다운 도덕 품성이며 근면한 로동만이 행복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청원들은 태만과 건달 사상을 반대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욱 성실하게 로동하며 특히 육체 로동을 사랑하며 언제 어데서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솔선 담당 수행하는 품성의 소유

자가 되여야 합니다.

또한 민청원들은 동지 호상간에 있어서나 가정이나 사회 생활에 있어서 정직하며 기만과 허위가 없는 량심적이고 솔직한 사람으로 되여야 합니다.

둘째로 민청원들은 동지애가 있고 웃 사람을 존경하는 고상한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동지애란 생활 목표가 같은 사람들이 호상 존경하며 동정하며 원조하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동시에 동지애는 우리의 생활을 유쾌하고 즐겁게 하여 줄 뿐만 아니라 곤난을 극복하는 힘을 줍니다. 때문에 민청원들은 동지를 사랑할 줄 알며 어떤 곤난이나 불행에 빠진 동지를 도와 주며 동지의 잘못을 진심으로 고쳐주는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민청원들은 또한 웃 사람에 대한 례절을 지키며 말과 행동을 정중히 하며 특히 로인들과 녀성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도와주며 늙은 부모를 지성껏 부양하는 등 고상한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되여야 합니다.

세째로 민청원들은 사회 공중 도덕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즉 민청원들은 공중 시설물을 애호하고 공중 장소에서 질서를 지키며 란폭하고 비문화적인 행동을 반대하며 겸손하고 단정한 태도를 가지며 특히는 교통 질서와 집회 장소에서 질서를 지키는데 모범이 되여야 합니다. 끝으로 민청원들은 남녀 청년들간에 맺어지는 사랑과 결혼 및 가정 생활에 대하여 건전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참된 사랑은 혁명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과 로동하는 과정에서 호상 존경과 깊은 리해에 기초하여 맺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민청원들은 낡은 사회의 유물인 허영과 개인 향락을 위하여 사랑을 찾아 다니는 경향 그리고 남녀 관계를 경솔하고 불건전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풍기를 문란케 하며 로동과 학습에 지장을 주는 현상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ㅈ. 《민청원은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항상 준비되여 있어야 하며 높은 경각성을 가지며 국가 및 군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우리 조국은 아직 통일 독립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은 공화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습니다. 미제와 그의 주구 리 승만 역도들은 파쑈 테로 통치를 강화하여 남반부 인민들을 암흑과 무권리, 기아와 질병의 도탄에 빠뜨리고 있으며 기회를 엿보아 공화국 북반부에 침공하려고 각종 발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을 파견하여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파괴하며 청년들의 단결을 약화시키려고 덤빕니다.

그러므로 민청원들은 항상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여 조국 보위의 초소를 철옹성같이 지키며 만약 적들이 도발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언제 어느 곳에서나 격멸 분쇄할 수 있게 준비되여 있어야 합니다.

조국 보위의 신성한 의무를 실천하는 길은 조국 보위의 성벽인 조선 인민군에 복무하는 것입니다. 민청원들은 인민 군대를 열렬히 사랑하며 그에 복무함을 고상한 임무로 인식하고 그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체를 단련하며 군사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청원들은 높은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국가 및 군사 비밀을 엄수하며 직장내에서의 질서와 제도를 강화하는데 모범이 되여야 합니다.



비는 왜 오는가!

지금은 벌써 우스운 이야기로 들리지만 우리 나라 농촌엔 옛날부터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는 관습이 있었다. 즉 여름철에 가물이 들면 산에 올라가 개를 잡아 놓고 비가 오기를 비는 제사가 그것이다. 이 기우제는 옛날 사람들이 비가 오는 것을 《하나님의 조화》처럼 생각하고 있은데 유래한 것이였다.

그러나 비가 오는 것은 그처럼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며 매우 단순한 자연 현상이다.

짙은 안개가 낀 날 아침 길을 걷는 당신들의 옷은 축축해지다가 차츰 젖어 들 것이다. 이것은 안개가 흰 연기처럼 보이지만 그 성분상으로 보아 연기와는 달리 아주 작은 물'방울들로써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어떤 동무들은 물'방울이 어떻게 공중에 뜰 수 있는가 하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물'방울에도 작은것, 큰 것 여러가지 있다. 즉 공기의 무게보다도 가벼워 공중에 뜨는 물'방울도 있고, 공기의 무게보다 더 커서 땅에 떨어지는 물'방울도 있다.

지구에 있는 물과, 수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들은 해'볕을 받아 가열되면서 차츰 증발한다. 물이 증발한다는 것은 물이 기체(氣体)로 즉 수증기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들의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 없다. 수증기라고 하면 우리는 솥안에 넣은 물이 끓으면서 흰《수증기》를 내뿜는 것을 련상하지만 실상 그것은 수증기가 아니라 벌써 아주 작은 물'방울로 되여 버린 수많은 물'방울이 합친 것이다.

이 수증기들이 하늘로 올라 가면 공기는 습해진다. 그리고 그 수증기들은 더욱 높은 하늘로 올라 가면서 랭각되는 관계로 차츰 물'방울로 변하고 만다. 이처럼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것을 응결 현상이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일단 응결된 물'방울들은 시초에는 몹시 작은 탓으로 계속 하늘을 떠돌아 다닌다. 이것이 바로 구름이다.

그러나 구름은 우리가 보는 바처럼 하늘에 영원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단히 새로운 물'방울들을 보충받아 커지기도 하며 반대로 없어지기도 한다. 한편 계속 커가는 구름속에서는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합치면서 비교적 큰 물'방울들을 이룬다. 이때 커진 물'방울들의 무게가 공기의 무게보다 크게 되면 그것들은 곧 땅우에 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올려면 먼저 구름이 생겨야 하는데 구름이 많이 생길 수록 비는 많이 온다. 이런 리유로 우리는 증발이 심한 곳에선 비가 많이 오고 증발이 적은 곳에서는 비가 적게 온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옳다. 바다'가에서 보다 내륙(內陸)에서 비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대기중에 있는 공기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는 바람에 의해서 시종 움직이게 마련인데 어떤 지방에서 증발이 심하게 일어난다고 하여 그곳에서 수증기가 구름

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지방에서 공기가 많은 수증기를 흡수한 까닭으로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올 조건이 충분히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바람에 의하여 그 공기가 다른 지방으로 이동해 가고 그 대신 수증기를 적게 흡수한 몹시 마른 공기가 이동해 왔다면 구름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지방으로 어떤 공기가 이동해 오는가, 즉 습한 공기가 이동해 오는가, 마른 공기가 이동해 오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 나라는 자연 지리적 위치상으로 보아 광대한 대륙의 동쪽 연해에 자리잡고 있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는 한편 그 북쪽은 직접 대륙과 접하고 있다. 이와같은 자연 지리적 조건은 우리 나라의 기후를 특징짓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겨울철에 비가 적고 여름엔 비가 많다. 우리 나라에서 겨울철에 비가 극히 적은 것은 수분이 없는 마른 대륙의 공기가 씨비리 지방에서 부터 내부는 바람과 함께 우리 나라로 운반되기 때문이며 여름철엔 주로 태평양 해상에서 많은 수분을 가진 습한 공기가 이동해 오기 때문에 비가 많은 것이다.

우리 나라의 봄철은 마른 공기의 영향을 받든 대기 과정에서 여름철의 대기 과정으로 넘어 가는 환절기로써 자체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5월 초순, 중순까지는 기본적으로 마른 대륙 공기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보통 5—6월에는 가문 날씨가 계속된다.

그러나 이것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다. 해에 따라 대륙 공기와 해양 공기의 이동 관계가 다르며 그런 결과 파종기에 비가 많이 내릴 때도 있다.

조선 중앙 기상대 심 계술

위생지식

적 리

우리가 여름철에 앓기 쉬운 병은 적리이다. 적리는 보통 《리질》또는 《붉은 배앓이》라고도 한다.

적리에 걸리면 열이 오르고 뒤가 무죽해지며 하루에도 너덧번씩, 심한 경우에는 여나문번씩, 변소에 드나들게 된다.

그러나 뒤는 보고 싶으면서도 대변은 잘 나오지 않고 흰 곱 또는 피가 섞인 대변이 나오며 환자는 점점 쇠약해진다.

적리는 여름철의 무서운 전염병중의 하나다. 잘 치료하지 않으면 나았다가도 다시 도지며 혹은 만성으로 되여 밸이 뚫어지는 병, 간장이 곪기는 병등 다른 병들까지 겹쳐 생기게 한다.

적리는 주로 세가지 경로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전염된다.

그중 하나는 적리에 걸린 환자와 접촉하거나 적리균이 묻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전염된다.

둘째로 적리를 전염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은 파리다. 적리 환자가 본 대변에 붙어 돌아가든 파리들이 우리의 음식물에와 앉거나 손, 입등을 스쳐 나르면 결국 적리균이 우리를 침범하게 되는 것이다.

세째로 적리균이 이미 들어가 있는 우물물을 그냥 마셔도 전염된다.

그러나 적리가 무섭고 또 전염되기 쉬운 병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이 잘만 예방하면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적리의 예방 대책으로써 무엇보다

여름철의 위생

도 중요한 것은 적리 환자를 제때에 발견하여 따로 입원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환자의 대변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적리균이 퍼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환자의 대변을 땅속 깊이 묻거나 10—20% 크로루칼리 용액으로 소독한 후 1시간만에 버리는 것이 좋다.

또한 변소에 갔다 온 후, 작업후, 식사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다음으로 상한 음식이나 파리가 앉았든 음식을 먹지 말며 물은 끓여서 마셔야 한다.

끝으로 파리를 결정적으로 없애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파리가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이미 생긴 파리를 모조리 잡아야 한다. 즉 변소, 가축사, 오물처, 퇴비장 등을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며 수시로 크로루칼리나 생석회를 가지고 소독해야 한다. 그리고 파리채, 파리통을 만들어 쓰며 파리약을 방안이나 부엌에 일상적으로 뿌려야 한다.

말라리야

말라리야(보통 학질이라고도 함) 역시 여름철에 많이 류행하는 전염병이다.

우리들 가운데는 이 병이 생명에까지 위험을 주는 전염병이 아니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상 이 병은 우리에게 큰 고통과 해독을 주는 병이다.

말라리야에는 하루 건너 앓는 3일열 말라리야, 이틀건너 앓는 4일열 말라리야, 매일 앓는 열대성 말라리야 등의 세가지 종류가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 나라에서 흔히 보는 것은 3 일열 말라리야이다. 말라리야가 발작하게 되면 갑자기 심한 오한이 나면서 떨리며 숨이 가빠 오르고 얼굴이 창백해진다. 발작한지 2—3시간이 지나면 오한은 멎고 체온은 40—41도 까지 높아지며 두통이 심해진다.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으며 헛소리까지 친다. 그러나 몇시간이 지나면 열이 내리고 땀이 흐르면서 병이 나은것 같다.

허지만 하루 건너 같은 시간에 다시 앓게 된다. 만약 말라리야를 철저히 치료하지 않으면 10—12회, 또는 그 이상 발작을 거듭하게 되는데 이처럼 말라리야를 오래 앓으면 몸이 몹시 쇠약해지며 로동 능력을 잃게 된다.

이런 악독한 말라리야는 모기가 전파시킨다. 그러나 아무 모기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3일열 말라리야를 전파시키는 모기는 아노페레스라고 하는 모기인데 보통 모기와는 다르다. 그것은 벽에 붙을 때 머리는 숙으리고 배는 벽과 떨어져 일정한 각도(약 40도)를 짓는다. 그러나 이 모기라 하여 다 말라리야를 전파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말라리야 환자의 피를 빨아 먹은 모기만이 전파시킨다.

우리는 말라리야에 걸리면 철저히 치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며칠후나 몇주일후에, 또는 몇달후나 이듬해에 재발한다. 특히 근로 녀성들이나 가정 부인은 말라리야가 류산의 한 원인으로 되며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고 말라

리야에 걸리면 그 병균을 철저히 뿌리 빼야 한다. 그러나 임신부가 기니네(금계랍)을 함부로 먹는 것은 유해롭다.

말라리야를 예방하려면 우선 모기를 박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주택 부근에 있는 물웅덩이, 습지, 소택 등을 메워야 한다. 또한 도랑, 배수구등을 일상적으로 깨끗이 청결하여 물이 잘 흘러내리도록 해야한다. 집에서 쓰는 항아리, 독같은데 필요 없는 물을 오래 담아두지 말고 쓰지 않을 때는 엎어 두는 것이 좋다. 방화수통은 반드시 뚜껑을 덮는 동시에 수시로 물을 갈아야 한다.

그리고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밤에 잘때 모기장을 치며, 자기 전에 모기'불을 피워서 모기를 미리 몰아내는 것은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밖에 야외에서 잠자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년에 말라리야를 앓은 동무들은 반드시 반재발 료법을 실시해야 한다.

꼬리를 가진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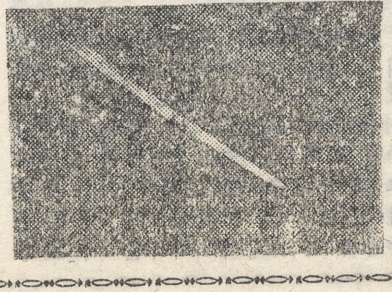
요즘 서북쪽 밤하늘엔 꼬리를 가진 희한한 별이 보인다. 우리는 누구나가 긴 꼬리를 가진 그런 아름다운 별을 밤하늘에서 보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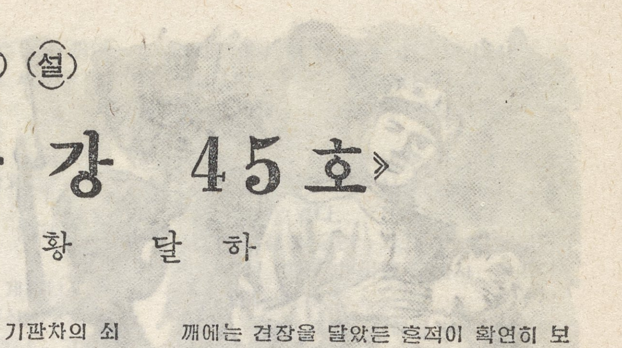
우리는 이 별을 혜성(慧星)이라고 부른다. 혜성은 원래 태양계에 속하는 유성인데 그것은 우주에 한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벌써 발견한 수'자만 하더라도 천개나 더 되며 그것은 해마다 3—10개씩 새로 발견되면서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이 너무나 먼거리에 있기 때문에 망원경 없이는 볼 수 없다.

혜성은 지구처럼 자기의 궤도를 따라 태양 주위를 돈다. 그의 궤도는 길쭉한 타원형이다. 그런데 그 길쭉한 정도가 혜성마다 다르기 때문에 태양 주위를 도는 그것들의 주기(周期)도 같지 않다. 그래서 어떤 혜성은 몇천년만에야 제자리에 다시 돌아오는데 어떤 혜성은 3.3년만이면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혜성은 머리와 핵, 그리고 꼬리의 세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여 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혜성의 머리와 핵은 얼은 까스들로 덮인 고체들로써 이루어진 물건이다 이것이 태양에 가까워지면 높은 태양열을 받는다. 그래서 핵의 표면과 부분적으로는 그의 내부로 부터 까스가 발산된다. 이것이 혜성의 꼬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 꼬리는 때로는 수십키로, 심지어는 수억키로까지 뻗치게 된다.

또한 지구나 다른 별이 혜성의 꼬리와 만난다 하더라도 아무런 충돌 사고나 변동이 없을 것은 뻔하다. 우선 지구를 둘러 싸고 있는 공기층 자체가 혜성의 꼬리에 비하여 대단히 밀도가 높기 때문에 혜성의 꼬리인 어떤 미립자도 지구 표면까지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미개한 사람들은 혜성이 보이면 그것이 지구와 부딛쳐 지구는 없어진다고 생각하여 왔으나 그럴 수 없다. 혜성—이는 아무런 신기한 별도 아니다.





(단)(편)(소)(설)

《금강 45호》

황 달 하

철교 우를 달리며 내뿜는 기관차의 쇠된 기적 소리를 듣고서야 효석이는 놀란 듯 팔뚝 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열두시 오분전…막차군…》

그는 혼자말로 중얼거리며 책상 우에 벌려 놓았든 서류들을 주섬 주섬 거두기 시작했다.

마침 이때 전화벨이 자지러지게 울렸다.

《제 3초소에서 전화갑니다》

교환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꼬리를 물고 웅글한 바스 목소리가 울렸다.

《내무원 동지십니까…금방 주물 직장 자리 뒤'면에서 총소리가 났습니다》

《총 소리가——효석이는 큰 소리로 거이 꾸짖다 싶이 물었다——그래 그곳에 나가 보았소?》

그러나 전화의 감도는 갑자기 약해지면서 상대방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다.

효석이는 수화기를 놓자 밖으로 뛰여 나왔다.

3초소는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자위대 초소에는 자위대원 한 사람만이 남아 있고 모두 사건 현장에 나갔었다.

효석이가 달려 갔을때 철조망 밖에서 전지'불을 켜든 자위대원들이 무엇을 가운데 놓고 떠들석 하고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이요?》효석이는 다가서기가 바쁘게 물었다.

자위대원은 효석이를 보자 길을 비끼며 땅우에 엎으러져 있는 한 사람을 가리켰다. 《총에 맞았습니다》

효석이는 전지불'빛에 드러난 그 사람을 찬찬히 들여다 보았다. 그는 물 낡은 솜 옷을 입고 배낭을 지고 있는데 링 어깨에는 견장을 달았든 흔적이 확연히 보였다.

《제대 군인입니다. 이쪽으로 오는데 소로길 저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불쑥 나타나더니 다짜고짜 사격하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자위대가 순찰하는 것으로 안 모양입니다》

옆에서 자위대 책임자인 영진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하였다.

효석이는 제대 군인을 안아 일으켰다. 그는 몸을 뒤재기며 련신 신음 소리를 내였다.

《어서 이 동무를 공장 병원으로 운반하시오》

효석이는 이렇게 자위대 한 사람에게 이르고 곧 조를 나누어 주변 일대에 대한 수색에 달라 붙었다.

× ×

병원은 공장 구내 탁아소 옆에 기역'자 형으로 지은 아담한 벽돌집이였다.

녀의사 옥희는 처음에는 뜻하지 않은 사고에 저윽히 놀랐으나 막상 부상자에 대한 수술을 위해 메쓰를 들자 곧 용기를 내였다. 발그레한 귀밑까지 꼭 가리운 가제 마스크 우에서 크고 거무스레한 두 눈이 조용히 빛나고 해맑은 손은 상처 두리에서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함뿍 내 돋아 하얀 카텐 새로 숨어 들어 오는 미풍에 나풀거리든 머리카락이 찰싹 붙었다.

《어떻습니까? 옥희 동무…》

수술이 거의 끝날녘에 병원에 온 효석이가 근심스레 물었다.

《일 없어요. 어깨 죽지를 관통했어요.



배가 상하긴 했으나 인차 아물 수 있어요》 옥희는 소독수에 손을 잠그고 솔로 손끝을 닦으며 대답했다.

환자는 거의 실신한듯 눈을 꼭 감은채 누워 있었다.

효석이는 수색에서 아무런 흔적도 얻을 수 없었다. 그래 좀 더 자세한 것을 알아 볼려고 했으나 옥희가 안정시켜야 한다고 만류하여 후에 묻기로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

옥희는 수술을 끝내고 제대 군인을 입원실 베뜨에 눕힌 후에야 비로소 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 보았다. 하관이 쭉 빨고 볼배가 약간 돋우라져 나온 그의 얼굴은 귀염상스럽고 눈밑이 발그레 하여 어딘가 애잔해 보였다.

하나 하나 그의 얼굴 모습을 뜯어 보던 옥희는 문뜩 지금은 그의 행방조차 알길 없이된 동생 영석의 생각이 일어 났다. (어쩌면 영석이와 비슷한 데가 있을가…)

옥희의 가슴에는 다독 다독 다졌든 재밑에서 피어나는 불처럼 생각지 않으려든 동생 생각이 다시 피여 올랐다.

영석이란 그에게 하나 밖에 없는 동생이였다. 그는 해방된 해 겨울 큰 학교에 간다고 서울로 가버렸는데 여적 그의 소식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영석이에 대한 생각은 한시도 옥희의 가슴에서 사라진적이 없었다. 더우기 공화국에 많은 대학들이 생기고 옥희 자신이 의학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되면서 부터는 동생 영석이의 생각이 더욱 간절하였었다. 동생을 그리며 운적도 한 두번이 아니였다. 철 없이 서둘은 그의 행동이 얄밉기도 하였으나 그 암흑의 남조선에서 어린 몸으로 얼마나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으랴 하는 생각이 들때마다 가슴이 미여지는 것 같았다.

(지금 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가?)

옥희는 침대 머리에 두 손을 받쳐 턱을 고이고 물끄러미 천정 한 끝을 바라보다 부지중 한숨을 호—몰아 쉬였다.

《으—ㅁ, 음, 누나 누나…》

갑자기 제대 군인이 몸을 뒤재기며 헛소리를 질렀다. 옥희는 소스라쳐 놀라며 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았다. 그러나 분명 자기 동생은 아니였다.

《동무, 동무 정신 차려요》

옥희는 이렇게 말했으나 어쩐지 아픈 데를 찔리운듯 그의 목소리는 떨리였다.

이윽고 제대 군인은 진정되였다. 그러나 옥희는 그의 곁에서 떠날 수가 없었다. 그는 다른 환자들에게서 느껴 보지 못한 야릇한 정이 그를 여기에 앉아 있도록 끌어 당기는것 같았다.

어느듯 창가에는 푸름 푸름한 새벽 하늘이 비끼기 시작했다.

× × ×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가뜩이나 침울한 생각에 잠기기 쉬운 옥희는 버쩍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북바쳤다

조용한 사무실에는 옥희 혼자 앉아 있

었다. 그는 학생 시절 때의 수첩을 꺼내여 그 속에 부쳐 있는 동생의 사진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고꾸라복을 입고 학생모를 내리쓴 동생은 빙그레 웃고 있었다. 이 사진은 동생이 서울에 갈 때 한장 남겨 놓고 간 것이였다.

이때 사무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 오는 사람이 있었다.

《선생님 뭣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감짝 놀란 옥희는 수첩을 책상 구석에 밀어 놓으며 뒤를 돌아다 보았다. 거기에는 서철 (부상당한 제대 군인)이가 빙그레 웃으며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서철이는 상처가 웬간 해지자 부터는 퍽 명랑해졌고 옥희가 자기를 구원해 주었다고 여간 따르지 않았다. 또한 서철이는 다감한 청년인데다가 음악과 문학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옥희와 이런 저러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 이야기를 곧 잘 문학에 대한 이야기로 끌어 갔다. 생글 생글 웃으며 정열적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옥희는 어느 결에 그의 말에 사로잡히군 하였었다.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요 앉으세요》 옥희는 물끄럼히 쳐다만 보고 있는 서철이에게 의자를 권하며 말했다.

《선생님, 낯색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아냐요… 공연히 동무가 그렇게 보는 거죠》이렇게 대답하면서도 그는 얼굴에 서린 애잔한 빛을 감출 수 없었다.

(꽤 감상적인 녀자군…) 서철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처음 판단이 과연 옳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옥희에게 사의를 표하려고 미리 마련해 둔 이야기의 실 마디를 끄집어 내려고 하였으나 어쩐지 입이 열리지 않았다.

이때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한 로동자가 들어 섰다.

《아 여기에 계셨군요. 선생님… 복길 동무가 지금 갑자기 배가 비틀린다고 영 정신을 못 차릴 지경입니다》

《복길 동무가요!?》

옥희는 냉큼 일어서자 위생복을 걸쳐 입기가 바쁘게 문을 열고 달아 나갔다. 그는 나가다 문뜩 생각났는지 돌아 서며 서철에게 《미안 합니다, 갔다 오겠어요》 하고 말했다.

《예… 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나 서철이는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황겁히 달려 가고 있는 옥희의 뒤'모습을 창문 넘어로 보면서 옥희의 책상 앞에 와 앉았다.

그는 옥희의 낡은 수첩을 번지며 읽어 내려 갔다. 거기에는 옥희가 자기 동생 영석이와 헤여진 후 그를 그리며 쓴 단편적인 감상이 기록되여 있었다. 서철이의 조그마한 눈은 불에 반사된 보석 같이 반짝였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하고도 어떤 새로운 기대에 대한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쳤다. 《음 그는 이 노래를 무척 좋아 했군…》 그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영석이의 사진에 시선이 머물자 그는 주위를 힐끔 살피는 것이였다.

× ×

며칠 후였다. 옥희는 사택 마을에 왕진 나갔다가 밤에야 병원으로 돌아 오고 있었다. 구름새를 누비며 숨박곡질하던 달빛이 병원 스레트 지붕에 줄줄히 쏟아져 초록 빛을 일구고 있었다.

(참 그림 같구나!)옥희는 황홀해지며 입원실 모퉁이를 돌아설 때였다.

옥희는 문뜩 섰다. 그리고 귀를 기울렸다. 달빛 같이 부드럽게 흘러오는 은근하고도 박력 있는 노래'소리 그것은 《볼가의 배' 노래》였다. 《볼가의 배' 노래》—동생 영석이가 그처럼 사랑하고 즐겨 부르든 노래—그 노래는 언제나 동생의 이름과 함께 가슴에 살아 있는 노래였다. 옥희는 벽에 몸을 기대였다. 그의 큼직한 정열적인 두 눈에서 달빛이 재롱을 부리고 있었다.

…어기여차 어기여차…노래는 계속 들려 왔다. 옥희의 가슴은 들먹이였다. (누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그는 노래'소리 나는 대로 살금 살금 걸어 나갔다. 2호실 앞에까지 오자 그는 문뜩

섰다. 창가에 기대여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서철이였다.

달빛을 담뿍 받은 그의 두 눈은 반디'불 같이 반짝이였다.

《서철 동무…이젠 그만 부르세요》

옥희는 참다 못해 이렇게 말하며 불쑥 그의 앞에 나섰다.

서철이는 놀란듯 벌떡 일어섰다.

《아 난 누구라구…왜 그리세요》

《그건 묻지 말아요. 그저 그만 두세요. 후에 불러요》

《에 정 그리시다면… 그런데 말이죠, 베뜨에 누워 달빛을 바라보느라니까, 원쑤들에게 학살된 누님 생각이 간절해지더군요, 그래 저도 모르는 새에 읽어났지요… 환자가 되고 보니 자기로써도 겁이 날 지경으로 신경이 예민해 집니다》

옥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자기 동생도 어디선가 자기를 그리며 저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

달빛을 즐즐히 받고 서 있는 옥희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 보든 서철이는 문득 이렇게 말했다.



《옥희 선생, 이렇게 말한다구 욕하지 마세요. 이제 찬찬히 보니까 옥희 선생은 꼭 저의 누님과 비슷한 데가 있어요》

《제가요?!》옥희는 아픈데를 건디리운 사람처럼 함칠 놀랐다.

《예… 옥희 선생 오늘부터 전 선생님을 누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일 없을까요…》

옥희는 눈'시울이 화끈 해져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 자기 방으로 발을 옮겼다.

이날밤 옥희는 밤새 가슴을 태웠다. 그는 (너는 당 회의에서도 엄격히 비판받은 적이 있지 않는가—옥희 동무는 좀 더 굳세여야 하겠습니다. 옥희 동무의 성격에는 남달리 가냘픈데가 있습니다—옳은 지적이야 그런데 요즘 나는 또 그런 약한 소리에 빠지고 있어… 천성적일까? 아니야. 그럴 수 없어…이건 사상적 흠, 점이 야. 사소한 감정에 동요되는 이 가냘픈 사상을 시정해야 해. 난 굳세게 살아야 해…)하고 스스로 결론을 지은 후에야 잠이 들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그들의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다. 서철이는 옥희를 누이처럼 따랐고 옥희 역시 그를 지성껏 대해 주었다.

하루의 로동이 끝나면 옥희는 병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공장안 공원으로 그와 소풍하러 나가군 했다. 하루는 연못가에 앉아 이러 저러한 이야기 끝에 서철이는 《…그런데 말이죠, 누님, 저의 청을 하나 들어 주겠어요》하고 말하면서 옥희의 낯색을 살폈다.

《무슨 청이예요 갑자기…》

《다름 아니라, 여기 도서실에 있는 책은 대부분이 이미 읽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여기에 처음 올때 저 시내에 있는 가개'방에서 하루 류숙했는데 뜻밖에 그 집 젊이 아주 좋은 문학 서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후에 자리 잡으면 좀 빌려 달라고 하니까 얼마든지 빌려 가라고 하지 않어요… 제가 직접 나가 빌려와도 되겠지만 어디 환자를 마음대로 나다니게 하겠어요. 그러니 누님께 청을 드리는거지죠. 그쪽에 나가는 일이 있을 때마다…좀 부탁해요》

이렇게 되여 그후 옥희는 그의 청대로 그 집에서 책을 빌려다 주기도 하고 그것을 몇번이나 갖다 반환해 주기도 하였다.

밤은 어지간히 깊었으나 공장 주재 내무원 효석이는 자기 방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일전에 서철이가 사격을 받은 사건이 있은 후부터는 이 사건을 해명하기 위하여 갖은 대책을 다 취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여적 아무런 단서도 붙잡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상부에서 내려 온 긴급 통보는 그로 하여금 더욱 흥분하게 하였다.

요며칠 어간에 정체 모를 전파가 자꾸만 날리는데 그것을 잡아 암호를 풀어본 결과에 의하면 이 공장에서 진행되는 공장의 중요한 비밀이였으며 발신자의 암호는 《금강 45호》라는 것이였다.

효석이는 가슴을 옥죄이는 초조감을 느꼈다. 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한시간이 바삐게 적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위험한 사태가 또한 벌어질지 모를 일이였기 때문이다.

그는 지긋이 주먹을 다잡으며 마음에 짚이는 몇몇 사람을 머리에 그려 보았다.

그 중에서도 어리광치듯 굴면서도 어딘가 간교한 빛을 눈속 깊이 감추고 있는 듯한 서철이의 얼굴이 떠오르자 새삼스레 긴장되였다.

그러나 그는 곧 이 생각을 스스로 부인해 버렸다. (그는 빼젔이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당당한 제대 군인이 아닌가? 너는 무슨 증거가 있어 그를 의심하는가…)

그러나 그는 요즘에 서철이가 례의 공장 한 로동자와 무척 새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 보았다. (방심할 수 없어…)

효석이는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자위대 몇 사람을 데리고 사건 현장으로 다시 나갔다. 그는 여러 시간 수사하든 끝에 서철이가 쓰러졌던 바로 그 위치의 한 풀섶에서 팔알만한 탄피 한 개를 얻었다. 효석이의 눈섭은 별안간 엇비슷이 치켜올랐다. 왜냐면 소로길 저쪽에서 사격했다면 탄피는 그쪽에 있어야 하지 서철이가 쓰러졌든 자리에 떨어질 리 만무하기 때문이였다.

× ×

효석이가 병원에 와서 사담삼아 이것저것 서철이에게 묻다가 돌아간 날 저녁이였다. 서철이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그는 밤늦을 때까지도 침대에 누운 채 천정 한쪽에 멍청하니 시선을 주고 있었다. 그러다가도 누가 나타나기만 하면 곧 명랑해지며 익살을 부리였으나 어쩐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창가에 기대여 밖을 멍하니 내다보고 있는 서철이를 본 옥희는 어느날 저녁 이렇게 물었다.

《누구와 다투었어요?》

《예!?》

그는 소스라치듯 몸을 돌리며 반문하고 싱긋 웃어 보이노라고 했지만 그의 입 귀는 굳어진채 어색하게 떨렸다.

《난 또 누구라구… 다투긴 누구하구 다투어요. 고요한 저녁이 마음에 찾아드니 공연히 심란해 지는군요…》

서철이는 옷 자락의 실밥을 묵묵히 뜯으며 대답했다.

옥희 역시 풀이 꺼진 그의 얼굴을 보자 구슬퍼졌다. (아마 학살당한 누이를 생각하는 모양이군…) 하고 제멋대로 생각한 옥희는

《그런걸 생각해 무엇해요! 자 어서 요전에 하다 만 소설 이야기나 해요》하고 말했다.

《해 드리지요… 저 때문에 괜히 기분을 흐리게 해서 미안해요》

그들은 보라 빛으로 물들은 저녁을 황홀하게 바라보며 공원으로 묵묵히 발을

울졌다. 팽팽하게 부풀어 실실히 드리운 실버들 가지가 그들의 머리 우에서 하느적 거리고 쭉 깔아 놓은 조약돌이 발밑에서 소리내여 굴렀다. 이윽고 벗나무 숲에 오붓이 잠긴 공원이 나타났다. 전주에 달린 빨갛게 물든 전등들이 점점 어두워가는 공원을 아늑한 집안처럼 밝히고 있다. 연못가에 놓인 벤치에 이르자 옥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에 앉을가요?》

《더 걸읍시다.》

서철이는 어둠속에 붕긋하니 돋우라져 보이는 앞의 숲속을 턱으로 가리켰다. 그들은 또한 말없이 걸었다.

《그만 걸읍시다… 어서 그 소설 이야기나 하세요》

침침한 숲속에 들어서자 옥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조금만 더 갑시다. 저기 바위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위에 와 앉았을 때에는 어둠에 잠은 주위는 죽은듯 괴괴하고 다만 나무 사이로 공장의 불'빛이 멀리 가물거리는데, 마치 여기는 거기와는 인연이 없는 별 세계와 같은 감을 주었다.

한참 후에야 서철이는 입을 열었다.

《옥희 선생, 난 선생에게 보여줄 물건이 하나 있어요》

《내게요!?》

《옳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여드려야 할걸, 옥희 선생의 성격을 보아 고민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공작에 지장이 있을까봐 여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무엇인가를 강요하는듯한 목소리였다.

서철이는 안지갑에서 사진 한장을 꺼내자 눈이 휘둥굴해 있는 옥희 앞에 내밀며 전지를 비쳤다.

사진을 찬찬히 들여다 보든 옥희의 손은 갑자기 떨리고 그의 입에서는 배를 비트는 듯한 신음 소리가 들려 나왔다.

《영석이!?…》

《용히 알아 보셨군요, 영석이가 말하길 자기가 서울에 올때 이와 똑 같은 사진 한장을 누이에게 주고 왔으니 누이한테 찾아가 이 사진을 보이면 많은 방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예!? 그런데 동무는 도대체 어떤 분이예요?》

《핫핫하하… 참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동생 영석이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금강 45호라고 합니다.》

옥희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옥희는 쓰러지듯 바위에서 미끄러지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앞의 모든 것이 새깜해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도 사랑하고 오래'동안 가슴에 그려오며 바른 길을 걷고 있으리라고만 믿어온 영석이가 이처럼 원쑤들 속에 있으리라고는 어떻게 꿈엔들 생각했으랴! 아— 차라리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가…

옥희는 가슴을 쥐어 뜯었다.

《난 옥희 선생이 동생의 고귀한 뜻을 저바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진정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 보시요… 나는 좀 더 오래'동안 이곳에서 공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놈이 바로 그 효석이란 놈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바삐 내 공작을 결단성 있게 끝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선생은 이 비상 수단을 적극 도와야 합니다. 이 길이 곧 선생 동생의 고귀한 뜻이며 나아가서는 그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옥희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의 목을 옥죄여 드는 것 같았다.

《자 어서 말을 떼시요. 시간이 바쁩니다.》 옥희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저는 결코 그 길로 갈 수 없어요!》

《핫하하하…》 서철이는 갑자기 소리내여 웃으면서 옥희의 허리를 부둥켜 안았다. 그의 어투는 완전히 달라졌다.

《당신은 나보다 나이는 있으나 과연 철이 없군 당신은…》

옥희는 그의 말 허리를 뚝 끊으며 벌떡 일어섰다.

《놓세요 소리치겠어요.》

서철이는 이번엔 옥희의 손을 으스러지게 틀어 쥐였다. 그리고 이'새로 뇌까렸다.

《덤비지 마시요, 오기는 마음대로 왔지만 내 손아귀에 든 이상 선선히 돌려 보낼 순 없소》 옥희의 얼굴에 서철이는 자기의 얼굴을 바싹 갔다 대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우리 사업에 인입된지는 벌써 오래전 부터요》

옥희는 짐승같이 씨근덕 거리는 서철의 얼굴에서 독사눈이 잔인하게 번쩍이는 것을 느꼈다.

《거짓소리다! 그런적이 없다!》 옥희는 피석인 춤을 내뱉으며 악에 북바쳐 웨쳤다.

《덤비지 마시오, 영리한 옥희 선생. 이제 그 산 증거를 보여 드리리다》

서철이는 소설책 한권을 내놓았다.

《이 책이 낯이 익지 않습니까…이 책은 바로 당신이 내 요구대로 빌려오고 돌려주든 소설책이랍니다. 자 이걸 보시오》

서철이는 책장을 뒤지며 그 뒤에 대고 전지'불을 비쳤다. 순간 옥희는 등'골이 오싹 하고 몸서리가 끼치는 것을 느꼈다. 활자 옆에 드문드문 바늘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련결시키면 한개의 문장, 즉 그것은 공장 내부에 대한 비밀 수'자와 자료로 되였다. 옥희는 피가 쪽 빠지고 전기에 감연된 사람처럼 몸을 가눌 수 없었다.



《훌륭한 이 증거품은 당신을 파멸에로 이끌어 버릴 것이요. 현명한 옥희 선생, 우리는 아직 젊었습니다. 우리에겐 찬란한 앞날이 있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자체 파멸의 길을 택하렵니까…》

공포은 옥희의 심장을 꽉 움켜 쥐였다. 옥희는 넋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그가 지껄이는 대로 맡겼다. 그제야 서철이는 자기의 강요가 관통된줄 믿고 누구러지며 말을 이었다. 《부탁하자는 건 힘든게 아니요. 래일부터 실시하는 예방주사 약에 이 약을 혼합시켜 달라는 것뿐이요. 당신은 의사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 알게 아니요. 이 약의 효력은 한달 후에 년령에 따라 나타나니만큼 전염병은 점차 만염되고, 그러니 당신은 추호도 의심받을 리 없는…… 우리에겐 로동자들의 저 불같은 로력이 질색이요!》

서철이는 페니시링병과 흡사한 약병을 꺼내 옥희의 손에 꾹 쥐여 주었다.

옥희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진작 그래야지 그래야지요, 옥희 선생님 핫핫핫……》 서철이는 사뭇 통쾌하였다.

옥희는 장'대로 머리를 호되게 얻어맞은 것 같은 현훈증을 느꼈다. 저 웃음 소리, 그것은어디선가 들어 본 몸서리치는 웃음소리가 아닌가!?

옥희의 머리에는 영화 《승냥이》 에서

본 한 장면이 번개같이 스쳤다ㅡ 어둑 침침한 방에서 수길의 팔에다 대고 독약이 든 주사약을 놓던 살인귀 맥부인의 독기 뿜은 그 눈초리! 번쩍이는 안경알! 그리고 미 선교사 스티븐손의 피에 주린 그 몸서리 치는 웃음 소리…

그 승냥이들이 몇천마리로 변하여 칼날 같은 이'발을 돋구고 자기의 머리를 움켜 쥐려고 덤벼드는 것 같았다.

《승냥이!》

옥희는 약병으로 서철이의 유들유들한 상판을 내리치자 미친 사람 같이 울부짖으며 수풀 밖으로 냅다 뛰였다.

《서라 쏜다!》

악에 바쳐 부르짖는 서철의 목소리가 등뒤에서 들렸다.

순간 《땅!》 하고 총소리가 울렸다.

옥희는 얼결에 땅에 펄석 주저 앉았다. 이때 달려와 번쩍 그를 부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옥희는 그가 낯익은 공장 자위대원들이라는 것을 알자 그만 그들의 가슴에 머리를 파묻고 소리내여 울었다.

《옥희 선생 자 이놈의 낯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서철이의 권총 든 손을 비틀고 효석이가 소리쳤다.

서철이는 굳어진듯 빳빳하니 선채 이를 부등부등 갈고 있었다.

효석이는 이미 심상치 않은 눈치를 채고 이렇게 미행하여 그들의 동정을 노리고 있었든 것이다.

효석이는 그놈한테서 만연필형 권총을 앗아 뺐다. 그리고 옆차개에서 탄피 한개를 꺼내 U. S. A란 글이 씌여 있는 그 밑둥을 서철이의 코'등에 갖다 대면서 모멸에 찬 어조로 말했다.

《서철이! 아니 <금강 45호!> 이게 첫 증거였소!》

그것은 서철이가 만년필 권총을 가지고 자기를 쏜 바로 그 총알짝지였다.

이날 밤'중으로 서철이의 련모자인 가개'방 주인도 체포되였는데 심문 과정에서 영석이의 사진은 서철이가 옥희의 수첩에서 복사하였다는 것을 실토했다.

~☆~

정 정

본지 5호 42페지 1단 34행 "……237톤의" 를 "287만톤의" 로 정정 합니다.

편집 위원 김 학 연 (주필)
김 상 민　김 수 백　박 춘 실
양 동 섭　조 채 현　현 영 호

청년 생활 제 6 호　1957년 6월 5일 인쇄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1957년 6월10일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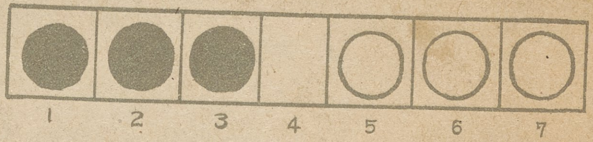
인쇄소—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값 25원)　ㄱ—40495　50,000부



바둑 넘기기 (실내 오락)

흰 바둑 3개를 바둑간 1, 2, 3 우에 놓고 검은 바둑 3개는 상대편 바둑간 5, 6, 7 우에 놓으시요. 다음으로 빈 바둑간 4를 리용하여 흰 바둑은 검은 바둑이 있는 자리로 검은 바둑은 흰 바둑이 있는 자리로 서로 바꾸어 놓으시요.

이 때에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바로 앞에 빈 간이 있다면 바둑을 그냥 그곳에 옮겨 놓을 수도 있고, 또 한간 넘어서 빈 간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넘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흰 바둑과 검은 바둑은 서로 맞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 설 수는 없습니다. 이는 15회로서 끝날 수 있습니다.



횡단 고양이 놀이 (실외 유희)

1. 유희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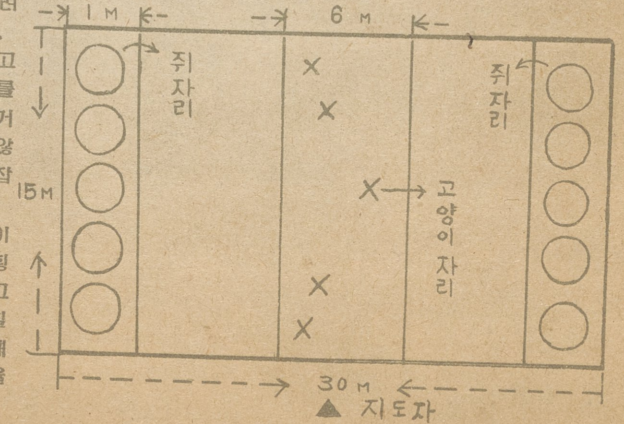
① 우선 5, 6명의 인원으로 정한 다음
② 남어지 인원들은 쥐로 정하되 그들을 두편으로 나눈다.

2. 유희장과 인원들의 배치

① 고양이들은 자기 집에 위치한다.
② 쥐들도 자기 자리에 1렬 횡대로 유희장을 향하여 서로 마주선다.

3. 유희 방법

① 지도자의 신호에 의하여 쥐들은 상대편 자리로 넘어가려고 노력한다.
② 고양이는 자기 자리를 횡단하는 쥐들을 잡으려고 노력한다. 이때 쥐들이 고양이의 자리를 이미 넘어 갔거나 침범하지 않았을 때에는 잡을 수 없다.
③ 쥐들이 고양이의 자리를 횡단하는 순간 고양이에게 잡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자기 옆을 지나가는 쥐와 호상 손을 잡게 되면 고양이는 쥐를 잡을 수 없다.
④ 고양이에게 잡힌 쥐들은 고양이로 되고 고양이는 쥐가 된다.



4. 실시상 주의

① 지도자의 신호에 의하여 전체의 쥐들은 반드시 상대편 집으로 달려가야 한다.
② 쥐들이 고양이의 자리를 넘어 갈때 고양이에게 잡히지 않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호상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8016 ЧХОННЕН ССНХВАЛЬ

